2022 서울기록원 아카이빙북

미래를 기록하는 환경혁신가들과 대화

환경과 쓰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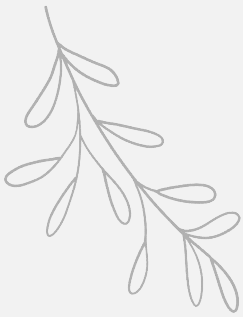
그리고

기록의 온도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Intro

2022 서울기록원 아카이빙북은
서울기록화 사업 과업 중 하나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기록문화기관인 서울기록원은
행정기록의 영구보존 및 관리에서 나아가
시민의 기록이나 시민이 저마다 자기 기록을
잘 관리·보존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0년부터 서울기록화지침(S-NAP)이라는 서사 방식을 기반으로
서울과 서울시민의 기록을 들여다보고 수집해 오고 있는
'서울기록화 사업'도 그 일환이다.
2022년의 수집 주제는 '쓰레기'와 '재활용'.
2022년 구글코리아 최고 검색어가 '기후위기'일 만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때
지구생태계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키워드로
쓰레기와 재활용을 주목하고 시민의 기록활동을 연결했다.
다양한 시민단체와 활동가를 만나며 환경 기록을 확인한
2022 서울기록화 사업은 수집과 별개로 시민들의 생활과 실천을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으로 인터뷰 모음집을 펴낸다.
활동가들의 역동적인 활동 내용을 전하는 일이
'쓰레기' 문제에 직면한 시민의 삶을 이해하는 방법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로 가는 가장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Contents

1.
인터뷰 01 한유사랑 '이타서울' 대표
환경 살리고, 건강 챙기고!
선행을 기록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
데이터 플로깅

2.
인터뷰 02 정주연 '다시입다연구소' 대표
옷장에 잠자는 21% 옷으로 여는
나와 지구를 위한 파티

3.
인터뷰 03 배민지 <SSSSL> 발행인·대표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의
'쓸모'를 찾아서

4.
인터뷰 04 박현민 우주웍스·우주북스 대표
"환경을 지키는 일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상의 한 조각이 되길"

5.
인터뷰 05 임소아 '채키비움' 에코 큐레이터
코로나19로 절감한 환경문제
기업 광고 아카이빙은 나의 작은 실천

6.
인터뷰 06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소비라고 쓰고
쓰레기라 읽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7.
인터뷰 07 송정화 'SONG for Earth' 대표
쓰레기 없는 삶을 넘어
건강한 에코페르소나의 삶으로

8.
인터뷰 08 글로벌 재활용 혁신기업
'테라사이클'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드는 연금술
테라사이클의 혁신 이야기

9.
인터뷰 09 생태예술가 정은혜 작가
플라스틱 쓰레기로 탄생한 만다라,
애도와 축복을 보내다

10.
현장 스케치 비건페스티벌 현장을 가다
지구를 살리는 다정한 축제
3년 만에 다시 열린
2022 비건페스티벌 이모저모

01

이타서울

한유사랑

대표

2022 ARCHIVING BOOK

환경 살리고, 건강 챙기고!

선행을 기록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 데이터 플로깅

이타서울
한유사랑 대표

걷거나 조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실천인 '플로깅(plogging)'. 누구나 쉽게 건강과 환경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라 개인은 물론 기업들의 참여도 꾸준히 늘고 있다. 비영리 환경단체인 '이타서울'은 이 플로깅에서 한 발 더 나아갔다. 플로깅 결과를 데이터화 하고, 이 '데이터 플로깅(Data Plogging)'을 통해 시민과 지역 기업, 비영리 단체들의 활동을 공동 지구행동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의도에서, 인천 바닷가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빛으로 표현한 대시보드는 이타서울이 구현하는 선행의 기록이자 사회적으로 공유가능한 자산으로 치환하는 아주 특별한 접근법이다.

이름마저 착한 '이타서울'의 데이터 플로깅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약간 우회로를 타야 한다. 이타서울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비전과 목표를 설계하고 차근차근 핵심 역할을 수행해온 한유사랑 대표와 동료들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를 따라 걸어온 길이다.

남다르게 우수한 저질체력과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우선 '이타서울'의 탄생. '미대언니' 한유 대표는 스스로 '남다르게 우수한 저질체력'이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심장 병력이 있었어요. 심장판막기형으로 정맥류가 동맥류와 섞이며 생기는 피로감, 그로 인한 장기 손상 등으로 오래 고생했고요. 하지만 성정이 활발했어요. 한국화를 전공했지만 사진을 부전공으로, 여기에 조소 수업까지 듣고 삽화 작업 등 아르바이트도 다양하게 했어요. 그 와중에 신체조건 때문인지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생각을 계속 했던 거 같아요. 서른을 넘기고도 계속되던 그 물음이 '감이당'이라는 공부공동체와 연결됐고, 공부와 일을 병행하게 됐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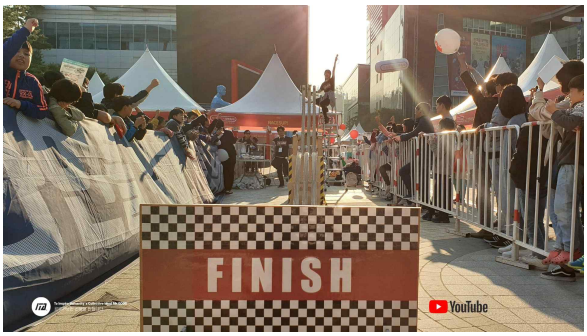
일복은 타고 났는지 2016년부터는 공부공동체에서 다큐 촬영이나 책 발간 작업에도 참여했다. 그러다 발견했다. 자신이 그림은 물론 글 쓰는 일, 또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를 공유하면서 활동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겠다는 생각을 해오다 2016년 마음 맞는 친구들과 실행에 옮겼어요. 저를 포함해 심장병으로 마라톤의 꿈을 접은 친구 등 대여섯 명이 수술이 어려운 심장질환 어린이를 돕는 모임 '이타서울'을 만든 거예요. '공유가능한 선행을 만들자'를 모토로 이타서울은 러닝, 공연, 행사 등을 통해 즐거운 기부문화를 만들고, 아울러 아픈 사람도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자고 약속했어요."

와디즈 리워드 펀딩으로 히말라야 기부 트레킹을 수행한 한유사랑 대표가 이타서울 깃발을 들고 있다.

2022년의 시민플로깅 모습

첫 프로젝트로 기부 러닝 '두런두런(DO RUN DO RUN)'을 시작한 때가 2017년. 기부 러닝은 시즌별로 10회씩 총 9시즌, 그러니까 90번 가량 이어졌다. 소셜미디어로 기부 러닝 소식을 안내하자 참여자는 한 번에 30~40명으로 늘었고 연간 700여 명, 3년여 동안 함께 달린 기부러너는 2,500여 명에 달했다. 프립(frip), 와디즈 같은 소셜 액티비티 펀딩 플랫폼에서 지원을 받으며 기부 러닝은 자리를 잡았고, 여기서 쌓인 기부금은 심장병 환아 수술비로 전달했다. 활동 중간에 한유 대표는 온몸으로 산전수전을 겪으며 '히말라야 기부 트레킹'까지 단독으로 진행하는 기염을 토했다.



2019년 운영한 자원순환레이스 '레이스업(RACEUP)' 진행 모습

열기 넘치는 레이스업 현장

폐기물로 제작한 자동차 경주, 인맥 활용한 콘서트로도 기부

"그렇게 함께 하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기부금 영수증도 해주고 싶고… 이런저런 욕심이 생겨 사단법인으로 등록했어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몰라 생짜로 하다 보니 쌈짓돈 2천만 원이 고스란히 들어갔죠. 이제 프로젝트 추진 기반을 마련했겠다, 주머니도 비었겠다, 그때부터 부지런히 일을 벌였어요."

길이 15m, 높이 3m의 나무 레일 3개를 설치한 다음 폐기물로 제작한 자동차를 만들어 경주를 펼치는 '레이스업(RACEUP)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서울혁신파크에서 활동하는 메이커들이 개최한 페어에서 처음 선보인 레이스업은 가족들의 환호를 이끌어냈고, 이 소문이 한국창의재단에 닿아 새활용센터에서 1년 가량 레이스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또 이타서울은 사이사이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을 위한 기부 캠페인인 소극장 콘서트도 열었다. 국제정치를 공부하다가 과감하게 재즈로 전공을 바꾼 한유 대표의 언니 등 주위 '인맥'의 도움으로 가능했던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2019년, 이타서울은 새로운 도전을 감행한다.

"3년여 활동 기간 동안 펀딩을 가장 많이 받은 프로젝트가 레이스업이었어요. 문제는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이 프로젝트가 행사를 끝내고 더 많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환경에 좀 더 집중하자고 의견을 나누면서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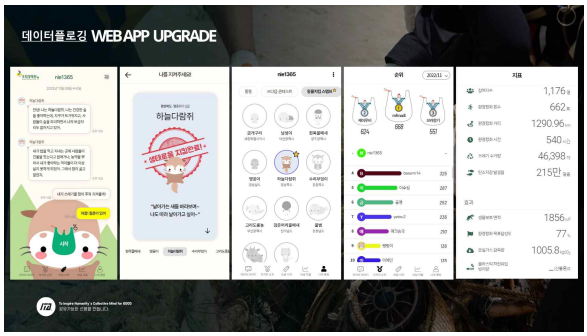
미션클리어, 재미까지 선물하는 플로깅앱을 소개합니다~

그때 포착된 것이 기부 러닝과 연계한 플로깅이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식은 이타서울의 성에 차지 않았다. '재미'를 추구하는 한유 대표와 동료는 기존 플로깅과 차별화하는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단체 내 개발자 없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무모한 도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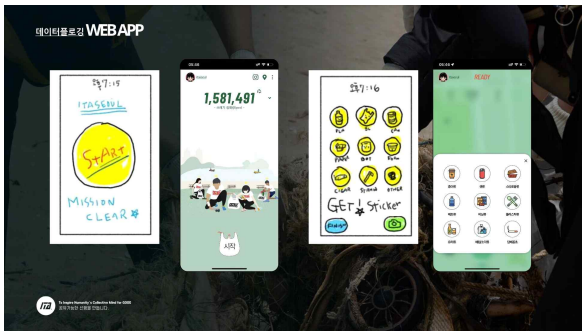
"당시 '포켓몬고' 게임이 출시돼 엄청난 인기였어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우리도 이런 걸 적용해 보자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리고 게임처럼 접근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했던 아이디어는 차츰 재미있게 밖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하면, 자신의 선행을 계속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하면 더 좋겠다는 식으로 발전됐어요."

그 과정에서 이타서울 활동가 중 개발자가 한 명도 없는 현실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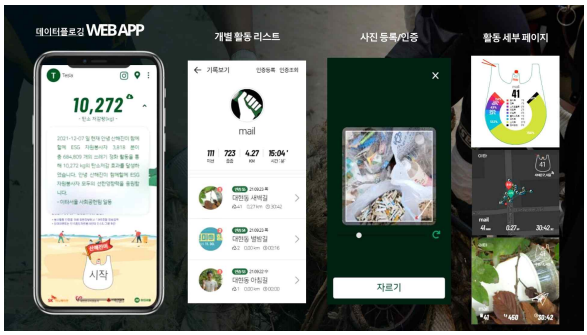
"개발자가 없으면 배우면서 해보면 되니까요. 동료들과 역할을 나누고 GPS(글로벌위치측정시스템), 코딩 등을 배우면서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고 하나하나 구현해 나갔어요. 저는 디자인 비중이 높은 프론트를 맡았어요. 어플까는 것을 싫어해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방식을 채택했고요."



2020년 추진한 데이터 플로깅 웹애플리케이션 '미션클리어' 개발 과정



초기 구상 스케치와 애플리케이션에서 구현된 모습



미션클리어가 구현한 개별 활동 리스트와 사진 등록 및 활동 세부 페이지 모습

'재미'를 추구하는
한유 대표와 동료는
기존 플로깅과 차별화하는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단체 내 개발자 없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무모한 도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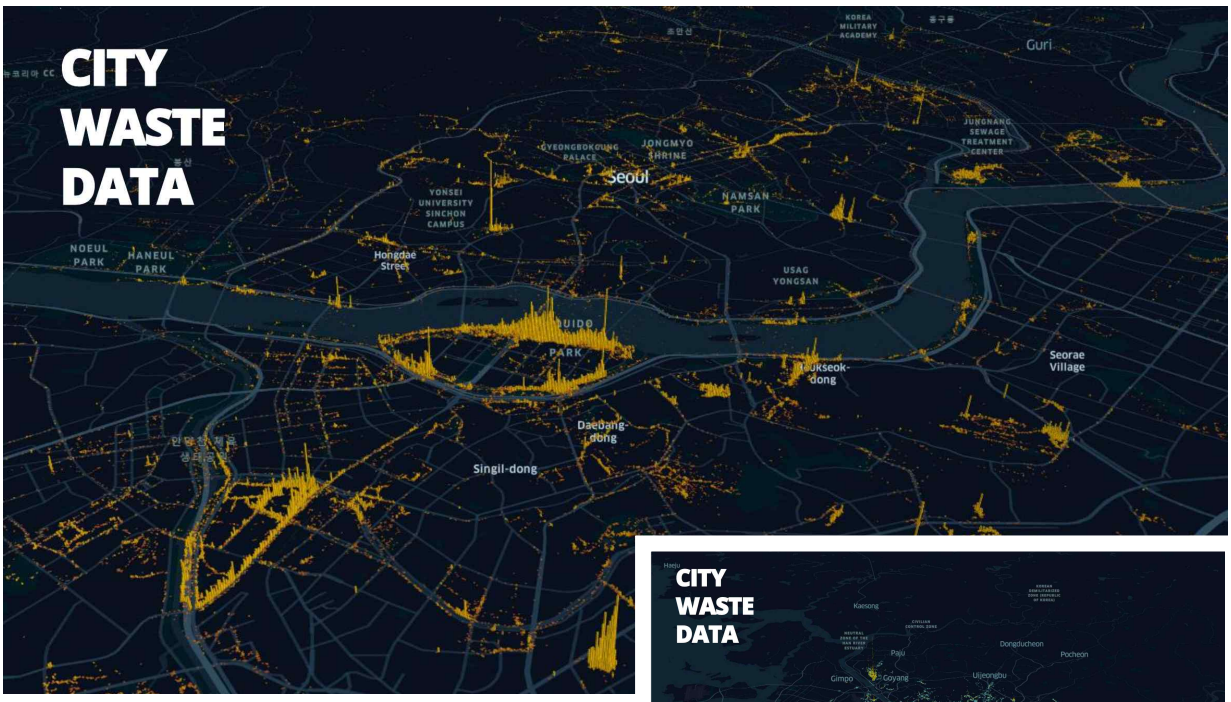
아프리카, 대서양에서 쓰레기를 줍는다고요?

애초부터 GPS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전 과정이 녹록치 않으리라 예상했는데 '역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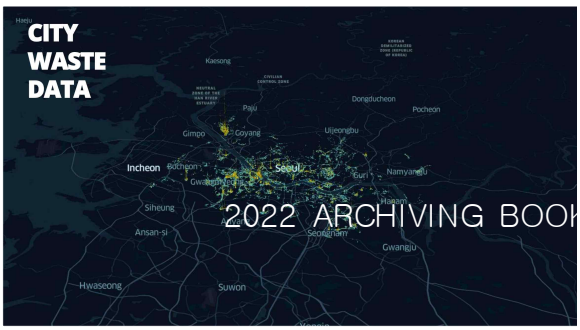
"웹 애플리케이션이다 보니 초기엔 GPS가 중구난방으로 찍히는 거예요. 서울 여의도인데 아프리카로 인식을 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튀어서 대서양에 있기도 하고요. 단계마다 난관에 부딪혔지만 다행히 자처한 일이라 시행착오가 거듭돼도 외려 신났던 거 같아요. 1차 개발 완료 이후 12번 정도 버전업을 했어요."

그렇게 꼬박 1년을 투자해 선보인 결과가 '이타닷시티(ita.city)'의 '미션클리어'이다. 2020년 서비스를 시작한 GPS 기반의 미션클리어는 지도 위에 주은 쓰레기 양은 물론 어떤 경로로 쓰레기를 수거했는지 동선까지 남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었다. 예를 들어 플로깅을 한 위치에서 '2,660걸음을 걷고 104개의 쓰레기를 수거'했다는 결과가 데이터로 남는 것이다. 또 곳곳에 재미를 위한 장치를 심었다. 활동하며 찍은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 특정 동물을 '찜'해 목표의식을 고양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단비를 선택하면 '단비를 위한 플로깅'이 되는 식이다. 게임처럼 즐겁게 플로깅을 하고, 활동 결과를 세세하게 남길 수 있는 미션클리어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

"2020년 7월에 공식 론칭을 했으니 2년 반 정도 지났는데, 2022년 말 현재 가입자는 1만3000여명이에요. 가입하지 않고 접속하는 분은 하루에 2만 명이 넘고요. 지금까지 100회 이상 한 분도 있어요. 활동하고 나면 저희가 '몇 번째 선행입니다'라는 메시지를 2초 정도 띄우는데, 이걸 캡처해 개인 소셜미디어에 올려 공유하는 분도 있어요."



플로깅 결과를 빛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다.



빛으로 표현된 여의도 플로깅 결과

'미션클리어' 커스텀 방식으로 기업들과 협업

또 개인들 못지않게 미션클리어에 관심을 보인 곳이 있었으니 기업들이었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소셜미션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기업과 협업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어요.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구상이기도 했죠. 미션클리어를 접한 기업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지금까지 SK하이닉스, SK이노베이션, SK C&C 같은 SK 계열사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산림청, 중앙자원봉사센터, 경기자원봉사센터, 분당야탑청소년수련원 등 여러 기관들과 일했고요. 틀은 유지하면서 커스텀, 그러니까 기관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반영해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드리는 방식으로요. 건강과 환경이라는 주제에 의미와 재미를 녹여낸 저희 애플리케이션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등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 관심이 높은 기업들의 기대에 부합했던 것 같아요."

특이한 부분은 지구적 재난이었던 코로나19가 외려 미션클리어 안착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격리와 강력한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집단적인 활동이 어려워지자 개별적으로, 재미있게 환경 실천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미션클리어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개인에게, 모임이나 단체에, 나아가 기업에게 건강한 쓸모를 서비스하고 있는 미션클리어의 존재감이 빛을 발하는 부분은 또 있다. '데이터 플로깅' 이야기이다.

"여기가 여의도이고, 지난 2주간의 기록이에요. 환하게 밝히는 노란 빛이 보이죠? 저희가 보여드리는 쓰레기예요. 사실 플로깅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보니까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걸 지도 위에 아름다운 빛처럼 구현했어요. 데이터는 쓰레기지만 많은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들을 지도에 계속 표기해보자 해서 매핑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도 위에서 환한 빛이 된 쓰레기 기록들

여기에는 '자랑'으로 플로깅이 확장되길 바라는 한유 대표의 바람도 들어 있다.

"이타서울이 공유가능한 선행을 만들자는 모토를 앞세우는데, 선행도 자랑해야 확산될 수 있거든요. 환경 실천은 더더욱 알려져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숨기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안타까웠어요. 아예 대신 자랑을 해드리자 해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지도 위에 수치화한 쓰레기 빛을 매핑해 직관적으로 플로깅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대시보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요. 어디에도 없는 플로깅 데이터이기에 관련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한유 대표의 남다른 '기록 감각'은 미션클리어 완성도뿐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에 톡톡히 역할 했다.

"제가 그림을 그리다보니 순간순간 기록이 굉장히 소중해요. 오가며 생각난 아이디어, 그러니까 에스키스(esquise. 회화에서 작품을 구상하며 행하는 각종 초고나 스케치, 밑그림)를 남기지 않으면 휘발되고 말거든요. 기록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미션클리어나 데이터 플로깅과도 연결할 수 있었고,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기록을 활용해 '선행 데이터맵'도 만들고 싶어요."

함께 해요, 반려해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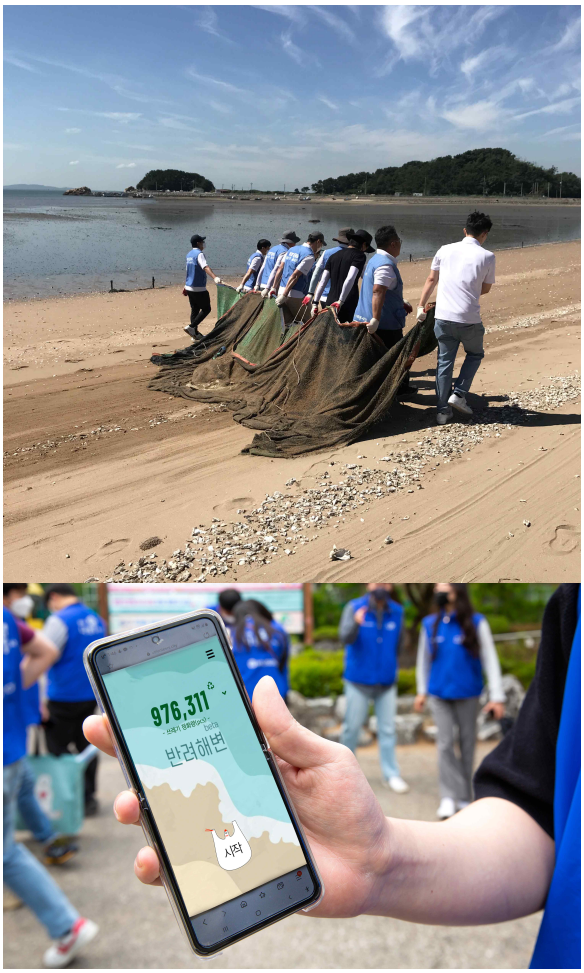
2022년은 이타서울의 영역이 바다로까지 확장된 해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과 바다 안팎에서 플로깅을 수행하는 '반려해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부터다.

"솔직히 기초조사를 하면서 놀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엄청난 도심 쓰레기가 해양으로 유입되고 있었는지, 그로인한 환경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몰랐던 거죠. 특징도 많이 달랐어요. 도심 플로깅은 상대적으로 참여도도 높고, 수거-폐기시스템이 체계화돼 있거든요. 반면 사람들의 시선으로 관리되기 어려운 해양 쓰레기는 가늠도, 대책도 쉽지 않았어요."

2022년 청년환경활동 모습

해양 폐기물은 경로도, 종류도 상상 이상이었다. 폐기물은 홍수부터 어선 침몰, 고의 투기 등 다양한 경로로 바다로 와 떠돌고 있고, 종류는 그물이나 부표 같은 어업 관련 도구가 대부분일 거라는 예상을 깨고 생활 일회용품부터 페인트통, 타이어, 심지어 세탁기 같은 대형 가전도구도 적지 않았다. 최근 낚시 인구가 늘면서 바늘이나 줄 등으로 인한 오염도 크게 증가했다. 게다가 좋은 취지로 해변 플로깅을 하고 수거한 폐기물을 '모아놓고' 가버려 해당 마을이나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오히려 모아놓은 쓰레기 때문에 더 많은 쓰레기를 부르는 악순환도 잦았다.

"반려해변 프로젝트는 이처럼 악화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하는 행동이에요. 이타서울이 수도권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어요. 반려해변에서 기업 임직원, 단체들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이 쓰레기를 모아 적치해 놓으면 해수부와 해당 지역 지자체, 마을 어촌계 등이 폐기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이에요. 2022년 반려해변은 왕산해변(포스코, 로백틴), 마시안해변(CJ, 주한미국대사관), 선녀바위해변(KT&G), 용유해변(효성첨단소재) 등이에요. 반려해변에 모인 기업 임직원들과 '환경 OX퀴즈'로 몸을 풀고 쓰레기를 수거해요."



2022년 펼친 이타서울의 해변 정화 활동과 해양 데이터 플로깅 어플

**도심 플로깅은
상대적으로 참여도도 높고,
수거-폐기시스템이
체계화돼 있거든요.
반면 사람들의 시선으로
관리되기 어려운 해양 쓰레기는
가늠도, 대책도 쉽지 않았어요.**

기업들에 반려해변 연계…
해양수산부장관상도 수상

해양쓰레기 데이터는 반려해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타서울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특히 전체 해양쓰레기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플라스틱이 요주의 대상이다.

"건져진 부표 안에 홍합이나 조개들이 자리잡고 있어요. 홍합을 열어보면 스티로폼을 한가득 물고 있고요. 결국 최상위 포식자인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반려해변 프로젝트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해변별로 플라스틱 비율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도 연구는 물론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효용이 있을 거예요. 환경단체에

서 조례 등으로 제도적 개선책을 제안하려고 해도 근거 자료가 부족할 때가 적지 않은 걸로 알거든요."

프로젝트 기획부터 설계 과정, 실행 전반이 '야무지다'는 말이 부족할 정도. 실제로 해양수산부는 제22회 국제연안정화의 날에 반려해변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타서울에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여, 응원을 보냈다.

반려해변 프로젝트는 청년들에게도 인기다. 활동을 지원하는 서포터즈 모집에 대한 반응은 바로미터. 처음에 5명을 모집하면 서너 명에 머물던 수가 지금은 10명 모집에 40명이 응모할 정도다. 대학교 환경동아리에서 먼저 연락해오기도 한다.

2022년 제22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에서
해양수산부장관상을 수상하고 있는 한유사랑 대표

2022년 이타서울은 해수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핸디형 풍력발전기?
2023년 스스로 빛을 되는
'에너지 러닝'이 달립니다~

이타서울은 2023년에도 깜찍하고도 깜짝 놀랄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에는 기존 기부 러닝에 '에너지'를 추가했다. 손으로 들 수 있는 '핸디형 풍력발전기'를 개발해 전력을 생산하겠다는 야심만만한 프로젝트다.

"코로나19 이후 활동을 돌아보기 위해 영상을 만들다가 번뜩 스친 아이디어였어요. 손에 쥐고 달릴 수 있는 핸디형 발전기를 만들면 어떨까 한 거죠. 한강 등에서 뛰면서 전력을 만드는 거예요. 달릴 때 빛이 나면 재미도 있을 거고요. 휴대폰 충전 등 발생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병행 개발하려고요. 실험해보니 100명이 1시간 동안 달려야 휴대폰 하나를 충전할 수 있더라고요. 헉헉거리며 그동안 마구 소비했던 전기를 만드는 일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다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보니 에너지 러닝은 달리면서 스스로 빛이 되는 방법이자 동참 의지를 자극할 매력적인 실천이다. 한유대표는 2023년에는 한강에서, 여의도에서, 종로에서 빛이 되어 달리는 지구지킴이가 되어보자 제안한다.

"저희가 활동 6년차인데, 그 사이 환경에 대한 지식 패러다임이나 관심이 확실히 높아지고 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까지 참여폭도 엄청 넓어졌고요. 이같은 추세에 이타서울도 조금은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깨달음은 이기적인 마음으로라도 타인을 위하다보면 결국 나를 위한 일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만 해도 플로깅이 운동이 되어 병원 가는 횟수가 줄고 건강이 좋아졌거든요. 앞으로도 저희 활동을 자랑하고, 수치화하면서 선의, 선행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02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

2022 ARCHIVING BOOK

Jung Ju-yeon

옷장에 잠자는 21% 옷으로 여는 나와 지구를 위한 파티

지속가능한 의생활문화 이끄는
다시입다연구소
정주연 대표

21%. 다시입다연구소가 조사한 우리의 옷장을 차지하고 있지만 더 이상 선택되지 않는 옷의 비율이다. 다시입다연구소는 이 옷장 속 의류를 꺼내 교환하는 '21% 파티' 마당을 열어 옷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소비 중심의 의생활 문화 개선 실험을 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 유행 중 하나인 '에코 OOTD(Outfit Of The Day)', 즉 주변에서 물려받거나 중고옷을 구매하거나 하는 것을 소셜미디어로 인증하는 문화이자 놀이와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의생활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지향하고 옷을 매개로 관계의 확장까지 매개한다는 점에서 보다 본질적인 성찰을 품고 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9월 열린 알맹상점과의 21% 파티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한가운데 총 24회의 21% 파티를 열고 이제 마을 단위의 '공유옷장', 버려진 옷을 다시 디자인해 일자리까지 창출까지 그리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다시입다연구소의 파티 이야기를 정 대표에게 들었다. 정 대표는 2022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혁신가 레이블, 카카오임팩트 펠로우십과 함께 하는 사회 혁신가이기도 하다.

Jung Ju-yeon

21% 파티 현장은 의류산업의 어두운 이면을 알 수 있는 교육장이기도 하다

소비의 부끄러움에 대하여

"통번역 일을 해 외신을 접할 기회가 많았어요. 번역을 하다가 '숍스캄(Köpskam)' 활동을 접했어요. 스웨덴어로 '숍'은 '소비'를, '스캄'은 '부끄러움'을 의미해요. '소비의 부끄러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유럽에서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소비 줄이기 활동을 소개하는 외신이었죠. 신상품이 만들어지고 유통되기까지 많은 자원이 사용되고, 그것이 환경오염은 물론 생태계 파괴, 기후변화를 가속화하기에 가능한 사지 말고 고쳐 쓰거나 중고 제품을 쓰자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때가 2019년. 당시 물질만능주의, 소비가 미덕인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다양한 콘텐츠로 담는 독립잡지 <언니네 마당>을 발간해 오던 정주연 대표의 시선이 '꽂힐' 수밖에 없었다.

"지구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 풍요가 기후변화라는 결과를 초래해 어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게다가 잡지를 함께 만들어온 그래픽 디자인을 하는 정소연 디자이너, 웹진을 발행하는 최윤희 에디터 모두 환경단체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각별했어요. 잡지도 좋지만 이 기회에 '환경'에 집중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보자 의기투합을 했네요."

지구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 풍요가 기후변화라는
결과를 초래해 어른으로서,
기성세대로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티셔츠, 청바지 한 장 만드는 데 각각 물 2,700리터, 8,500리터 사용

그런데 왜 많고 많은 소비 품목 중에서 '옷'에 주목했을까?

"대표적인 소비 상품이자 대명사이니까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싸고 다양하게 넘쳐나는 옷의 시대를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또 알고 보면 의류 생산유통시스템만큼 환경은 물론 우리 몸에 나쁜 것도 드물어요."

실제로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 한 사람이 3년 동안 마실 수 있는 물 2,700리터가, 청바지 1벌에는 욕조 40개를 채울 수 있는 8,500리터가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 옷장 포스터

실제로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 한 사람이 3년 동안 마실 수 있는 물 2,700리터가, 청바지 1벌에는 욕조 40개를 채울 수 있는 8,500리터가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산뿐 아니라 염색 등 모든 가공 과정을 합하면 전체 산업계에서 의류 산업이 사용하는 물이 20%나 되고, 의류 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 또한 2016년 기준 32억9천만 톤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더구나 이렇게 생산된 옷의 70% 이상이 3년 이내 소각되거나 매립지 등에서 폐기된다. 합성섬유 문제도 심각하다. 현재 60%가 넘는 의류가 플라스틱의 일종인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섬유로 만들어지는데, 이 합성섬유는 세탁 과정에서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하고 잘 썩지도 않는다.

"요즘 합성섬유를 재활용하는 업사이클이나 리사이클에 대한 혁신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덜 사고 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의류 산업의 이런 폐해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자, 쓰레기를 더 양산하지는 말자, 그리고 옷의 순환과 재사용을 이끌어내보자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섯 벌 중 한 벌이 옷장 속에 잠자고 있다!

2020년 모습을 드러낸 '다시입다연구소'의 탄생 이야기다. 그리고 연구소는 아주 의미있는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작아서, 혹은 정작 입으려니 안어울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등등 갖가지 이유로 멀쩡하지만 옷장 속에 고이 모셔져 있는 옷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본 것이다.

"21%, 엄청난 수치였어요. 다섯 벌 중 한 벌이 방치돼 있다는 뜻인데, 대부분 가지고 있다가 버리거나 아주 극소수 <아름다운 가게> 등의 중고 물품 플랫폼에 기부되는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옷 21%의 생명을 늘릴 수 있도록 일대일로 교환하는 '지속가능한 의생활문화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시장자본주의가 일으키는 환경문제를 비시장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 푸는 활동인 거죠."

당연히 최우선 원칙은 덜 사는 것. 때문에 다시입다연구소는 구매 이후부터 '개입'한다. 단순 교환장터를 여는데 머물지 않고, 접근 경로를 섬세하게 설계했다.

"옷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일이기에 교환할 수 있는 의류 수를 5벌로 한정했어요. 제한하지 않을 경우 자칫 의류를 폐기하다 지치겠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교환할 옷에 태그를 달도록 한 것이었어요. 이것도 외국에서 하는 방식을 차용했어요.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교환할 옷을 만난 사연은 어떻고, 몇 번 정도 입었는지, 왜 교환하려 하는지 등 '옷에 담긴 사연'을 종이표에 간단히 적어 붙여야 교환할 자격을 가지게 한 거예요. 이를 두고 옷을 입양하는 느낌이라고 하신 분도 있었어요."

Jung Ju-yeon

옷의 이야기를 적은 태그

2022년 4월 환경운동연합과 21% 파티의 뜨개수선 워크숍

‘이 옷은요~’
옷에 담긴 이야기 적은 태그로 교환 자격 부여

옷을 교환하는 행사는 ‘21% 파티’라 지었다. 옷의 의미를 나누는 자리가 즐겁고, 재밌는 파티장이길 바라면서. 21% 파티는 2020년 4월,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의생활 캠페인을 내건 다시입다연구소가 서울시NPO지원센터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걸음을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고작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2022년 12월 현재까지 열린 ‘21% 파티’는 총 24회. 21% 파티에는 옷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는 여러 체험 코너도 마련됐다. 재봉틀을 두어 참가자가 직접 수선을 해보거나 바느질로 작은 소품을 만들어보는 ‘수선&업사이클링’, ‘핸드페인팅 커스텀’, ‘스타일 제안’ 등이다.

“소중한 성과는 희망을 보여주는 2030 MZ세대의 발견이었어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구생태계와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에 적극적인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저희가 사전에 소셜미디어에 파티 소식을 알리면 알음알음으로 퍼트리며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친구에게 연락해 같이 오고, 엄마아빠를 모시고 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2021년부터는 기업들과 협업도 잦아졌다.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 경영을 고민하는 기업들이 21% 파티를 열어달라는 제안을 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코오롱, KT&G, SAP, 아산나눔재단 등에서 진행했어요. 카카오 임직원 3천여 명이 참여하는 21% 파티도 추진 중에 있고요. 기업들과 협업은 지속가능한 의생활 문화 캠페인을 확산하는

데, 그리고 연구소의 자립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웃음)"

꼭 다시입다연구소가 21% 파티를 개최하는 것은 아니다. 파티 가이드 팸플릿, 태그, 스토리 엽서 등으로 구성된 키트를 30명, 50명 규모에 맞게 구입해 자율적으로 파티를 열 수도 있다. 2022년 4월에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 고양시, 울산시, 강원 춘천시, 제주도 등 다시입다연구소가 SNS를 통해 지원을 받고 선정한 전국 10곳에서 파티가 열리기도 했다.

21% 파티 기업성과공유제 리플릿

헤이그라운드에 열린 21%랩

소중한 성과는 희망을 보여주는 2030 MZ세대의발견이었어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구생태계와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에 적극적인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21%랩, 공유옷장… 다시입다연구소는 오늘도 실험 중

최근 다시입다연구소는 몇 가지 프로젝트 실험을 통해 활동폭을 키우고 있다. 우선 주목받고 있는 것이 헤이그라운드 지원으로 한 달 동안 열고 있는 '21%랩' 프로젝트. 21% 파티가 하루 서너 시간 동안 열리는 장터라면 21%랩은 한 달 동안만 여는 상설매장이다. 이곳에서는 하루 2벌씩 옷을 교환하는 프로그램 외에 일상적으로 재봉틀이나 바느질 같은 수선 방법 품앗이가 이뤄진다.

"재봉틀 이용법을 배워 입지 않은 옷을 수선하는 분, 손바느질로 소품을 만드는 분, 다양한 분들이 이용해요. 닉네임 '다시님'처럼 거의 매일 오는 분도 있어요. 고친 옷을 내놓고 다른 옷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구 주인과 신 주인이 만나 사연을 나누고 사진을 찍기도 해요. 또 태그에 SNS 계정을 써놓으면 옷을 교환해간 분이 입은 모습을 찍어 올린 다음 구 주인에게 알려드리기도 해요. '제 옷을 예쁘게 입어주셨네요' 답글이 달리고요. 옷으로 매개된 관계망이 형성되는 거죠."

이 프로젝트가 마을과 결합하면 '공유옷장'이 된다. 정 대표가 꿈꾸는 일상의 하나이기도 한 공유옷장은 안 입는 옷을 가져가 걸어놓고, 입고 싶은 옷을 가져올 수 있는 마을 옷장이다. 그 안에는 재봉틀, 바느질 도구, 자투리 천 등이 놓아두어 줄이거나 리폼을 하는 등 직접 수선을 할 수도, 때때로 전문가를 초청해 커스텀 방법을 배울 수도 있다. 정 대표는 공유옷장이 장기적으로 옷의 소비시스템을 바꾸고 자원을 순환시키는 매력적인 공간이 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리디자인으로 폐기 줄이고 일자리도 만드는 '남은옷연구 프로젝트'

'남은옷 연구 프로젝트'는 다시입다연구소의 실험 중에서도 좀 더 근본적인 대안에 닿아 있다.

"21% 파티가 끝나고 남는 옷은 세 부류로 구분해요. 다음 파티에 갈 수 있는 옷, 어디에도 갈 수 없어 폐기해야 하는 옷, 그리고 기부하는 옷, 이렇게요. 무조건적인 기부는 결국 폐기로 이어져 옷의 생명을 늘리려는 저희 취지에 맞지 않았아요. 그래서 버려질 옷들을 가지고 뭔가를 다시 해보기로 했어요."

진행 과정은 이렇다. 공방을 운영하거나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생 등 기존 디자이너, 혹은 청년 디자이너 8명을 공개 모집해 교환에 성공하지 못한 옷을 연구하는 것이 1단계다. 이어 2단계는 옷이 선택되지 못한 이유를 꼼꼼히 살핀 다음 이를 반영한 리폼, 리디자인을 거쳐 교환 가치 높은 옷으로 탈바꿈시키는 시간. 이를 거쳐 재탄생한 옷을 21%랩이 있는 헤이그라운드 6층에서 전시해 반응을 알아보는 것이 3단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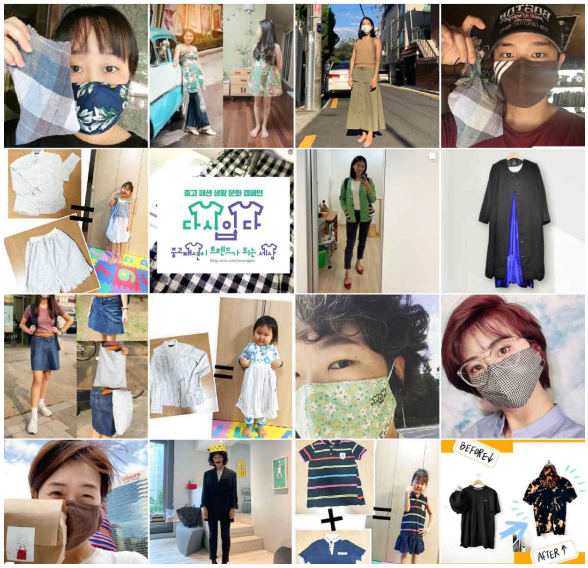
"이렇게 남은 옷을 건강하게 리디자인한 옷을 21% 파티에서 선보일 예정이에요. 선공개된 옷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지금 규격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해요. 유행이 지나면서 쌓인 옷, 예를 들어 스키니진의 경우 일정 규모의 상품화까지 가능할 정도라 리디자인된 옷이 반응이 좋으면 충분히 상품성이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태그에 SNS 계정을 써놓으면
옷을 교환해간 분이 입은 모습을
찍어 올린 다음 구 주인에게
알려드리기도 해요.
'제 옷을 예쁘게 입어주셨네요'
답글이 달리고요.
옷으로 매개된 관계망이
형성되는 거죠.

21% 파티 현장

21% 파티에는 2030 MZ세대의 참여가 높다.

Jung Ju-yeon



2020년 10월에 진행된 21% 파티 해시태그운동

우리 삶을 재편하는
근본적인 의류생산유통시스템에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K-패션도 빨리 패스트패션 대신
순환패션을 선택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패스트패션 대신 순환패션, 다시입다연구소가 여는 K-패션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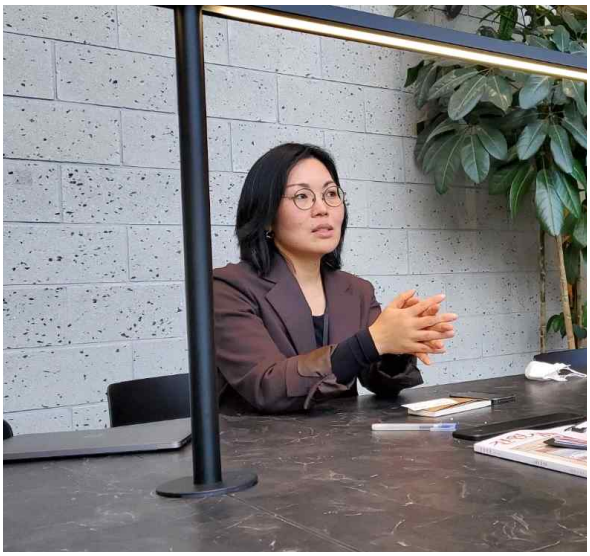
한편에서는 21% 파티의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K-팝, K-영화, K-드라마, K-뷰티 등에 이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꼽히는 K-패션이 친환경 패션을 지체시키는 의외의 복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그래서 K-순환패션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EU집행위원회의 경우 전략보고서까지 내면서 순환패션에 대한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모든 의류 매장에 수선실을 두게 하는 내용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 삶을 재편하는 근본적인 의류생산유통시스템에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K-패션도 빨리 패스트패션 대신 순환패션을 선택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정 대표는 순환패션, 지속가능한 패션이 새롭게 개척되고 있는 만큼 버려지는 자투리가 많은 디자인부터 체형에 맞는지 가상으로 입어볼 수 있는 기술을 접목시킨 AI디지털옷장까지 순환패션을 실현할 영역도 많다고 전한다.

가장 지속가능한 옷은 이미 옷장에 있는 옷

"그 과정에서 다시입다연구소가 실험한 방법이나 경험이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을 거예요. 이는 참가자들의 응원이기도 해요. 다시입다연구소가 한정된 인원으로 21% 파티를 열고, 남은 옷을 정리하고 옮기고 관리하는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신나게 일하는 이유이고요. 가장 지속가능한 옷은 이미 옷장에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 파티에서 만나요~."



03

제로웨이스트
생활문화잡지
<쓸ssss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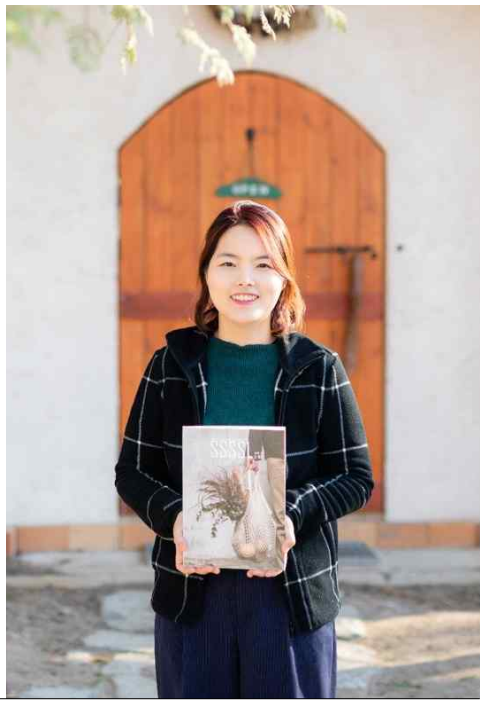
배민지

편집장

2022 ARCHIVING BOOK

Bae Min-ji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것들의 '쓸모'를 찾아서



제로웨이스트 생활문화잡지 〈쓸 ssssl〉
배민지 발행인·대표

물건이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돕는 잡지 <쓸>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란 물건이 우리 손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부터 버려지는 순간까지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낭비를 줄이는 생활을 말한다. 이 주제를 꾸준히 들여다본 잡지가 있다. 포장하지 않는 일상, 제로웨이스트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쓸 ssssl(이하 쓸)〉이다.

〈쓸〉에는 버리는 쓰레기가 아니라 쓸 수 있는 자원에 대해 생각하며 생활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영어로는 'SSSSL'로 표기하는데 '작고 느리고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인 삶(small, slow, sustainable, social life)'을 뜻한다. 독자들에게 물질적인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새롭고 건강하게 경험해볼 수 있는 실험을 담아내고 있는 〈쓸〉은 느리고 지속가능한 사회 안에서의 삶에 대한 감각을 일깨운다. 〈쓸〉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연스러운 삶이다.

잡지 〈쓸〉 모음

Bae Min-ji

독자들에게
물질적인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새롭고 건강하게
경험해볼 수 있는
실험을 담아내고 있는 <쓸>은
느리고 지속가능한 사회 안에서의
삶에 대한 감각을 일깨운다.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

잡지 <쓸>에 첫눈을 빼앗긴 다음 궁금증은 이런 걸 만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이었다. <쓸>의 발행인이자 주식회사 '쓸'의 배민지 대표를 만난 이유다.

"대학에서 외식을 전공하면서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졸업하고는 프랜차이즈 매장에 취업해서 3~4년 일했습니다. 정말 '빡세게' 일했어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싶던 차에 쓰레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보다는 '쓰레기로 뭔가 활용해 볼 수 있을 거 같은데?' 하는 수준이었죠. 매장에서 나오는 예쁜 깡통, 예쁜 봉투를 보면 모았다가 그걸로 뭘 만들지 꿍꿍이해보는 그 정도였지요."

배 대표는 2015년, 하던 일을 멈추고 본가가 있는 대구에서 도서관을 오가며 놀았다. 그때 만난 책이 《나는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였다. 여러 책을 잔뜩 쌓아 놓은 사이에서 유독 그 책이 눈에 들어와서 단숨에 다 읽어치웠다. 소설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그저 '쓰레기 없이 사는 법'에 대한 지침서였는데 많은 충격과 자극을 받았단다.

"그때부터 막연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네! 나도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환경단체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잔소리만 들었어요. 과자를 좋아하다보니 나오는 봉지가 고민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었는데 무심히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지, 쓰레기통에 버려'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런 걸 물어볼 만한 데를 찾아볼 즈음 서울에 막 '업사이클'이라는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서울로 왔다갔다 했지요. 친구들과 놀러왔다가 환경 관련 교육이나 행사가 있으면 참여하고 그랬어요."

그 시절 만난 그린피스 활동가들과 친해지면서 그린피스 창고에서 환경 다큐멘터리도 보고, 밥을 같이 해 먹기도 했다. 다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이들이라 이야기는 그칠 줄 몰랐고 배 대표는 그걸 조금씩 기록하게 되었다.

"다들 환경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라 각자 무슨 쓰레기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나는 휴지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 이런 이야기 나누며 지냈는데 친구들이 이런 거 좀 제대로 기록해서 남겨보라 하더라고요. 처음엔 막막했는데 하다 보니 또 기록이 쌓였어요. 이것들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길래, 잡지 같은 매체면 과하게 진지하지 않고 조금은 가뿐하게 기록할 수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나온 게 매거진 <쓸>입니다."

잡지 〈쓸〉과 굿즈들

Bae Min-ji

잡지 <쓸> 제작기

2018년 2월에 나온 <쓸> 창간호에는 물건을 포장하지 않고 구입하는 '포장하지 않은 일상의 시도'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전 세계의 움직임',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고 환경을 아끼는 마음으로 도시를 살아가는 《오 보이!》 김현성 편집장 인터뷰 등 일상과 이어진 정보들이 담겨 있다. 특히 그동안 배 대표가 실험해 오던, 자기가 버리는 쓰레기를 기록하면서 생활을 들여다보는 활동이 흥미롭다.

"개인적으로 몇 장 안 되는 이야기들을 묶어 보니 어디 내밀기도 좀 그렇고 완성도도 아쉽고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잡지 만드는 곳을 무작정 찾아갔지요. 그때 김현성 편집장님, <페이퍼>의 정유희 편집장님께 '잡지 어떻게 만들어요?' 하고 막 물어보고요."

잡지를 지속적으로 내기 위해 배 대표는 주변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다. 실력 있는 디자이너, 연예인 사진 많이 찍는 사진작가, 사진 촬영할 스튜디오 섭외까지…, 발품을 팔아 모르는 이에게도 물어물어 찾아가서 같이 작업할 사람들을 말 그대로 '빵빵하게' 모았다.

잡지 〈쓸〉 지면

개인적으로
몇 장 안 되는 이야기들을
묶어 보니 어디 내밀기도
좀 그렇고 완성도도 아쉽고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쓰레기로 뭉친 수상한 모임, 제로웨이스트 살롱

배 대표는 일을 하는 데 겁을 내지 않는다. 누구든 턱턱 만나고,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걸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창간 후에는 잡지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덜컥 열었다.

"창간호를 내고 '제로웨이스트 살롱'을 열었어요. <쓸>을 읽고 난 사람들이 모여서 책 이야기도 나누고, 쓰레기를 줄일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함께 상상해 보고, 쓰레기를 줄이는 삶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들도 공유하는 자리였어요. 저녁도 같이 만들어 먹고요. 그때 참여한 분의 절반이 외국인이었어요. 영어를 못해도 쓰레기에 관심 많은 사람들과 즐겁게 만날 수 있었죠."

그러다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 터졌다. 중국 환경보호부가 폐플라스틱과 폐금속 등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자료에 따르면 당시 중국은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을 수입해 처리하고 있었다. 이를 전면 거부한다는 것은 곧 중국에 쓰레기를 수출하고 있던 국가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하는 소식이었다.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이렇게 연일 쓰레기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을 즈음, <쓸>에게도 관심과 조명이 찾아들었다.

"집 앞에 내놓은 비닐이며 쓰레기를 업자들이 가져가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낀 시기였어요. 그때 '제로웨이스트'라는 개념을 표방하고 소소하게 쓰레기 줄이는 활동이 있더라, 이런 잡지도 있더라 알려지면서 엄청 인터뷰 하고, 관심받고 했어요. 솔직히 제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부끄럽기도 했어요. 아주 잘 만든 잡지도 아니고, 완전한 제로웨이스트도 아니라……. 그래도 '제로웨이스트'라는 키워드를 정말 알리고 싶어 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든 가서 소개하고 알리고 했던 거 같아요."

쓰레기는 0으로,
재활용은 100으로!
말하고, 모이고, 웃고, 즐기는
제로웨이스트 라이프

제로웨이스트는 자원순환플랫폼 역할을 하는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쓰레기는 0으로, 재활용은 100으로'라는 슬로건을 영어로 만든 표현이다. 2017년 배 대표가 한창 잡지 <쓸> 작업을 할 때만 해도 대중화된 개념은 아니었다. 이후 제로웨이스트 용품 전문점 '더피커' 같은 공간도 생기고, 제로웨이스트라는 개념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쓸>은 제로웨이스트를 핵심 키워드로 삼고 관련 이야기를 담아내기 시작했다. 한편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일체 쓰지 않는 제로웨이스트숍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숍인숍 형태로 '무포장가게 쓸'이었다가 서울혁신파크 안에 '없는가게'라는 이름을 가진 때도 있었다.

또 '없는가게'와 같은 제로웨이스트숍이나 제로웨이스트로 운영되는 다양한 가게들을 연결하고 네트워킹하는 '무포장가게 네트워크' 캠페인도 펼쳤다. 일회용품, 플라스틱 과대 포장을 제한하고, 소비자가 용기를 가져와서 직접 포장해 가는 정책을 실행하고, 컵이나 빨대 등을 재활용이 가능한 도구로 바꾸는 노력을 약속하는 매장을 멤버십으로 엮고 함께 소개하는 캠페인이었다. 2020년 한 해 동안 무포장가게 46곳이 참여했고, 이를 모아 무포장가게 아카이브북 《용기내요, 무포장가게》를 펴내기도 했다.

배 대표의 활동은 계속 확장했다. <쓸> 사무실과 '없는가게'가 있는 서울혁신파크에서 쓰레기 없이 즐기는 제로웨이스트 플리마켓 '쓸어담장'도 열었다. 쓰레기를 가능한 적게 배출하며 살고 싶은 사람들의 여러 실험과 상상을 만나볼 수 있는 발랄하고 재미있는 축제였다. 2022년에는 서울시와 함께 홈플러스, NC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 '제로마켓'이라는 제로웨이스트 팝업숍을 운영했다.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이고, 세제를 보충해 갈 수 있는 리필스테이션, 제로웨이스트 제품 판매, 자원순환소 등의 활동을 하는 숍인숍 플랫폼이다.

"제로마켓은 2022년 한 해 동안 서울의 대형 유통매장 10군데에서 문을 열었어요. 제로마켓을 설치하고 싶은 대형매장과 제로마켓을 운영하고 싶은 운영자를 각각 섭외하고, 매장을 꾸리고, 운영 전반을 돕는 프로젝트였죠."

지금까지 매체와 공간, 캠페인과 축제까지, 제로웨이스트와 관련한 새로운 상상을 하면서 기존 질서에 균열을 만드는 전천후 활동을 펼친 '쓸'은 이제 어엿하게 주식회사틀까지 갖추었다.

없는가게

Bae Min-ji

용기내요, 무포장가게

쓸어담장

기록하는 배민지 대표

이 많은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내는 겁니까?

사회적기업 '쓸'은 에디터, 디자이너, 프로젝트 매니저, 카페매니저 등 상근자 6명이 함께하고 있다. 일을 벌이는 배 대표와 그 일을 척척 수습하고 발전시키는 해결사들의 결합이다. 일을 진행할 때 기본 의사소통은 '슬랙'이라는 협업도구를 쓰고 있다. 구글드라이브를 공동으로 쓰면서 프로젝트별로 폴더를 구분해서 파일과 자료들을 관리한다. 최근에는 '나스'를 쓰면서 대용량 자료나 백업용 파일들을 관리하고 있다.

"<쓸> 창간호 만들기 전에 했던 초기 활동은 옛날 휴대폰에 다 저장되어 있었는데, 고장 나서 다 날렸고요. <쓸> 1호부터 6호까지 자료를 차곡차곡 넣어둔 외장하드가 깨져 모두 잃기도 했어요. 지금도 진짜 마음이 아프고 쓰려요. 처음엔 진정이 안 됐는데 언젠가는 복원이 되지 않을까 희망을 접지는 않고 있어요."

동시에 많은 일을 해내는 배 대표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기록이다. 에버노트 같은 걸 활용해 'to-do 리스트' 중심으로 할 일을 기록하고, 회의할 때는 워드프로세서에 바로 작업하는 한편 '쓸'의 공식적인 활동은 바로바로 인스타그램 등 소셜 계정에 올려둔다. 개인으로도 다이어리에 무언가를 쓰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다. 하루 계획을 쓰고 어제 하지 못한 일, 잊어버린 일을 정리하다 보면 그날은 좀 잘 풀리는 것 같단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카페 쓸' 말고 다른 카페에 다이어리 들고 혼자 가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애쓰곤 해요. 본가 대구를 오가는 기차 안에서 다이어리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다이어리도 지난 10월에 홀랑 잃어버렸어요. 거기 팀원들 생일 이런 거 다 적어놨는데. 돌아오겠지 하면서 계속 찾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흑~."

Bae Min-ji

쓸모 있는 카페, '카페 쓸'

'카페 쓸'은 2022년 2월 문을 열었다. 그동안 잡지 <쓸>에서 지향하는 쓰레기 없는 생활방식을 아날로그 세계에서 실천하고 감각할 수 있는 공간이다.

"'카페 쓸'이 자리잡은 이 자리가 예전에 '비전화공방' 제작자들이 손수 만든 친환경 카페였어요. 비전화공방은 전기와 화학물질에 기대지 않고 자립하는 삶을 실험하는 단체였는데요.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간이 아깝기도 하고, 쓸이 맡아 운영하면 친환경 취지도 잘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카페 쓸'은 기본적으로 카페 기능을 하고, 비건 메뉴와 유기농으로 농사지은 식료품, 제로웨이스트 용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카페 쓸'에서는 사소하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고 있어요. 카페 앞마당이 정원이잖아요. 그래서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모여서 씨 뿌리고 꽃과 작물을 가꾸고 수확하고 거둔 것들로 맛있는 거 만들어 먹는 '씨앗모임'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씨 뿌려 거둔 것들로 직접 해먹는 경험을 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하세요."

카페 쓸 내부

카페 쓸 외관

Bae Min-ji

카페 쓸 메뉴들

카페 쓸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농산물

카페 쓸의 지향을 담은 정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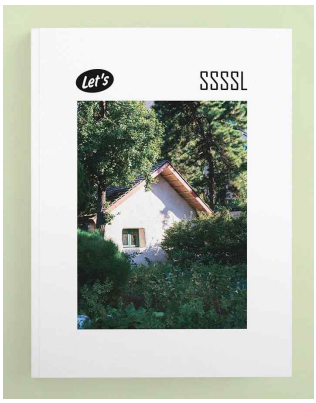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씨 뿌려 거둔 것들로 직접 해먹는
경험을 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참여하는 분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Let's SSSSL>은 잡지 <쓸>에 이어 '카페 쓸'에서의 활동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북이다. 자급자족, 가드닝, 제로웨이스트, 팜 투 테이블 같은 제로웨이스트 라이프를 실천하는 '쓸'만의 고유한 활동과 방법들을 소개한다.

"이 공간이 동화 속에 나오는 집 혹은 예쁜 카페로만 알려지고 있어 좀 아쉬웠어요. 여기서 만들어내는 음식은 앞마당 밭에서 따온 민트며, 거둔 작물을 손수 말려서 식재료로 활용한 것인데, 그런 활동들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Let's SSSSL>에는 카페 쓸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작은 일들을 소개하게 될 거 같아요."

Bae Min-ji

씨앗모임



잡지 〈Let's SSSSL〉

완성된 세상이 된다면 그 세상은 어떤 모습일지, 어떤 꿈을 꾸며 지금을 살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그냥, 자연스러운 세상? 지금은 뭔가가 너무 빨리 만들어지고, 쓰이고, 버려져요. 제대로 활용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자연스럽지 않게 느껴지고요. '쓸'이 조금이라도 낭비와 쓰레기를 줄이고 자연의 속도로, 자연스러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해요."

쓸이 꿈꾸는 세상

인터뷰 마무리, 쓰레기를 줄이는 삶, 나의 소용이 닿았던 소중한 물건을 쓰레기로 만들지 않는 삶을 꿈꾸는 배민지 대표에게 쓰레기는 과연 어떤 의미인가 진지한 물음을 처음처럼 다시 물었다.

"제게 쓰레기는 '절대로 만들고 싶지 않은 존재!'입니다. 쓰레기를 아무리 줄이고 싶어도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제대로 처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연과 이 지구를 함께 쓰는 다른 동물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요." 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더는 뭘 안 해도 될 만큼

〈쓸〉 배민지 발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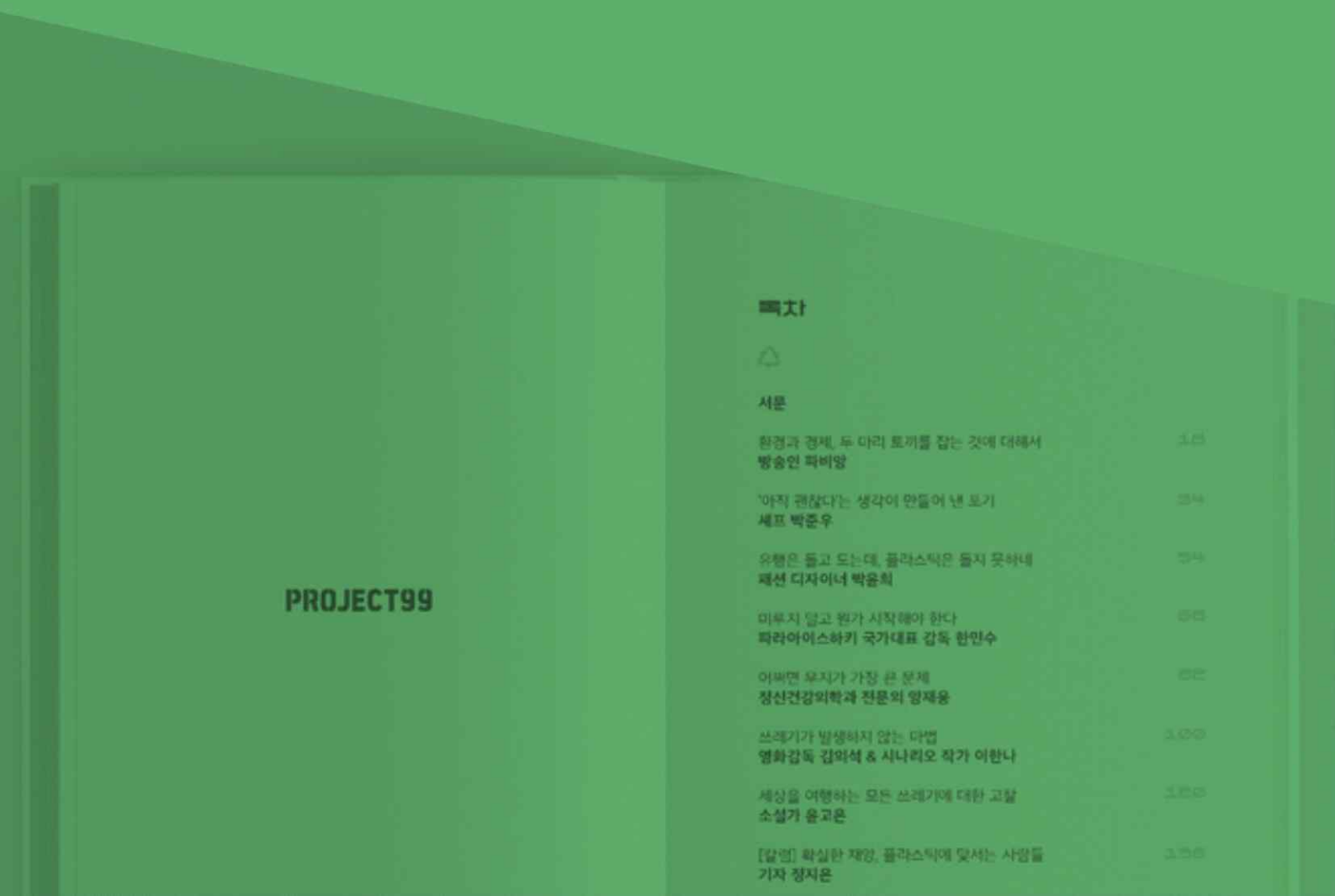
04

우주웍스·우주북스

박현민

대표

2022 ARCHIVING BOOK



Park Hyun-min

“환경을 지키는 일이 누구에게나 쉬운 일상의 한 조각이 되길”

우주웍스·우주북스
박현민 대표

콘텐츠 회사인 우주웍스와 출판사 우주북스의 박현민 대표. 15년 간 연예와 인권 매체 기자이자 방송인으로, 또 글을 쓰고 책을 펴내는 출판인으로, 환경 캠페인 기획자로 활동했다. 콘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알리는 멀티플레이어이다.

2021년 9인의 참가자가 9일 동안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 기록 이야기를 담은 ‘참여형’ 인터뷰집 《그저 플라스틱 쓰레기를 기록했을 뿐인데》를 발간한 박 대표는 고등학생 때부터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 대학에서 신문방송학을 전공하고 연예부 기자로 사회에 첫발을 디딘 그는 꾸준한 환경 관련 활동으로 대한민국 환경부 ‘2021 환경 인플루언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2 서울기록페어’에서 《그저 플라스틱 쓰레기를 기록했을 뿐인데》 제작 과정을 발표한 박 대표는 환경과 인권, 동물권을 아우르는 환경에 대한 담론을 발전시키고, 작은 실천으로라도 동행할 수 있는 해법을 나누는 일에 오늘도 ‘진심’이다.

《그저 플라스틱 쓰레기를 기록했을 뿐인데》 표지

Park Hyun-min

생산에는 5초, 사용에는 5분, 분해에는 500년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에 걸리는 시간은 5초, 사용에는 5분, 그런데 다 쓰고 버려진 뒤 분해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0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프란스 티메르만스 부위원장의 얘기대로 오늘날 플라스틱은 지구 환경 전반에 직접적이고도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통한다. 꾸준히 환경에 대해 공부해 온 박현민 대표의 시선이 플라스틱에, 더 정확히는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에 머문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평소에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텀플러를 사용하는 등 작은 실천이라도 하려 애썼어요. 그런데 대면 접촉이 줄고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코로나19 재난 와중에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매장 이용이 불가능하니 식사도, 커피도 포장을 하는데, 그에 비례해 플라스틱 용기 사용은 폭발적으로 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생태계에 얼마나 큰 위해가 되는지 충분히 알면서도 실천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실제로 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가 꽂혀 괴로워하고 있는 거북이 사진을 보거나, 비쩍 마른 채로 힘겹게 먹이를 찾아다니는 북극곰이 빠르게 녹아내리는 빙하로 인해 머지않아 사라질 수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뭐라도 해야 할텐데…' 끓어올랐다가 오래지 않아 무신경해져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흔한 사례. 박 대표가 '그저 플라스틱 쓰레기를 기록해보자' 한 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무관심과 죄책감의 간극을 좁혀보고자 한 결정이었다.

박 대표는 환경과 인권, 동물권을 아우르는 환경에 대한 담론을 발전시키고, 작은 실천으로라도 동행할 수 있는 해법을 나누는 일에 오늘도 '진심'이다.

박현민 대표의 《그저 플라스틱 쓰레기를 기록했을 뿐인데》를 읽은 한 독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기록해 올려놓은 모습

"힘들고 복잡한 실천 말고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누군가의 피해와 희생은 저 멀리 있고, 당장 나의 편의는 가깝기에 결심은 찰나, 언제 그랬냐는 듯 관성처럼 본래 생활로 되돌아오고 말잖아요. 고민의 결론은 저의 장점인 '연결'을 통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였어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말고, 지금의 삶을 가로막을 정도로 부담스러운 실천도 아닌,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환경을 지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옮겨보자는 거죠. 왜 피아노 배울 때 바이엘에서 체르니 식으로 연주의 난이도를 높여가잖아요. 환경운동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르니를 열정적으로 알려주는 이라면 저는 문턱을 낮춰 바이엘을, 그것도 초반 연주곡을 안내하는 역할이라도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것도 과학적 근거와 산술을 나열하는 게 아닌, 주변인들이 쉬 공감하고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구체화해 나갔다. 큰 틀은 각기 다른 일에 종사하는,

동시에 파장을 고려해 지인 중에서 일정한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9명에게 9일 동안 사용하고 배출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기록하도록 했다. 방송인 파비앙, 셰프 박준우, 패션 디자이너 박윤희, 파라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감독 한민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 영화감독 김의석, 시나리오 작가 이한나, 소설가 윤고은, 아티스트 솔비 씨가 기꺼이 참여했다.

이어 기록을 바탕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경험을 공유해 나갔다. '그저' 9일 동안의 기록이지만 이를 통해 환경을 지키는 일이 특별하거나 복잡한 일이 아니고 누구나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존재하는 일상의 한 조각이라는 의미는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또 하나 박 대표가 믿은 것은 '기록의 힘'이었다.

"기자는 '기획자'이자 '기록자'예요. 기록을 통해 모호하고 멀리 있던 것을 명료하고 내 앞의 구체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거든요. 내가, 혹은 다른 누군가가 볼 수 있다는 인식은 경험, 곧 행동이나 실천으로 연결될 확률을 높이고요. 그만큼 쓰레기를 기록하는 것만으로 힘이 있는 콘텐츠가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 플라스틱을 끌어들이는 전문가들

참여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해달라는 주문이나 가이드도 하지 않았다. 당장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가 플라스틱일까?' 질문하고 확인해보는 것부터가 '현행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상적이었던 게 참여하신 분들 모두 스스로 '너무 모르는 것 같다'는 얘기를 빼놓지 않는 것이었어요. '부끄러

플라스틱 쓰레기 기록화에 참여한 파비앙

Park Hyun-min

플라스틱 쓰레기 기록화에 참여한 박준우 셰프

식재료는 거의
플라스틱에 담겨
유통되니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생업이 걸린 상황에서
시장을 가려면
기회비용이 큰 데다
일에 치이다 보면
플라스틱을 쓰고
마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 접근 같이
좀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해법이
필요한 거죠.

워 이것저것 찾아보았다'고 하시고요. 이 발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지만 환경문제에서는 모를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우리처럼요. 그때 9일 동안의 솔직한 경험이 공감을 얻겠다는 느낌이 왔어요.(웃음) 그런데 기록 과정을 인터뷰하면서 '역시 전문가'들이더라고요. 해보니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줄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는 김의석 감독님은 영화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환경오염을 짚으면서 앞으로 시나리오를 쓸 때 환경을 고민하게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티스트 솔비 씨는 미술 재료 속 플라스틱 문제를, 박윤희 디자이너는 업사이클링을 주목하셨고요. 한국 최초로 영국 대거상을 수상한 윤고은 작가는 작품에서 어떻게 하면 환경문제를 녹여낼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방송인 파비앙과 박준우 셰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한때 같은 빌라에 거주한 인연이 있는 파비앙은 방송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것처럼 서울시내 웬만한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정도로 환경 실천이 몸에 배어 있다.

파비앙과 박준우 셰프의 속 깊은 질문들

"프랑스에서 온 파비앙은 가치 자체가 '어나더레벨'이에요.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환경을 지키는 생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당연히 습관으로 익혀야 할 지침인 거죠. 지금도 상암동부터 인사동, 심지어 강남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데, 존경스러울 따름이죠. 언젠가 이 친구가 '몇 년 동안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줄인 탄소가 얼마나 많겠어!'라고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번 프

로젝트에도 얼마나 착실하고 열정이 넘치는지 쓰레기가 배출될 때마다 사진을 찍어 보내요. 새벽에는 야식을 먹었더니 이렇게 쓰레기가 나왔다면서 보내고요. 취합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좀 괴로웠어요.(웃음)"

<냉장고를 부탁해> <편스토랑> 등의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인지도도 상당한 박준우 셰프는 필연적으로 환경문제와 나란히 제기되는 '기회비용'과 '가치의 우선순위'라는 현실적인 주제를 건드렸다.

"식재료는 거의 플라스틱에 담겨 유통되니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생업이 걸린 상황에서 시장을 가려면 기회비용이 큰 데다 일에 치이다 보면 플라스틱을 쓰고 마는 거예요. 사회적 합의나 제도적 접근 같이 좀 더 근본적인 사회적 해법이 필요한 거죠. 가치의 우선순위도 오래 재생되는 주제였어요. 와인업계가 코르크 재질 마개를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있는 사례를 박 셰프님이 소개했어요. 비용문제가 주된 원인임에도 표면적으로는 멸종 위기 코르크나무를 대체하고 환경을 위한 일이 되더라고요. 이처럼 명쾌하게 가르기 어렵거나 크고작은 이해와 갈등을 품고 있는 질문이 갈수록 더 쏟아질 거 같아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위해 또 다른 사회적 가치가 훼손돼서는 안되니까요. 머리가 아프겠지만 한편으로 질문이 계속 되는 동안 환경감수성도 높아지겠죠? 이때 제가 잘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도 쓰임이 높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봅니다.(웃음)"

플라스틱 쓰레기 기록화에 참여한 아티스트 솔비

<빅이슈> 최다 판매 기록 보유 편집장의 섭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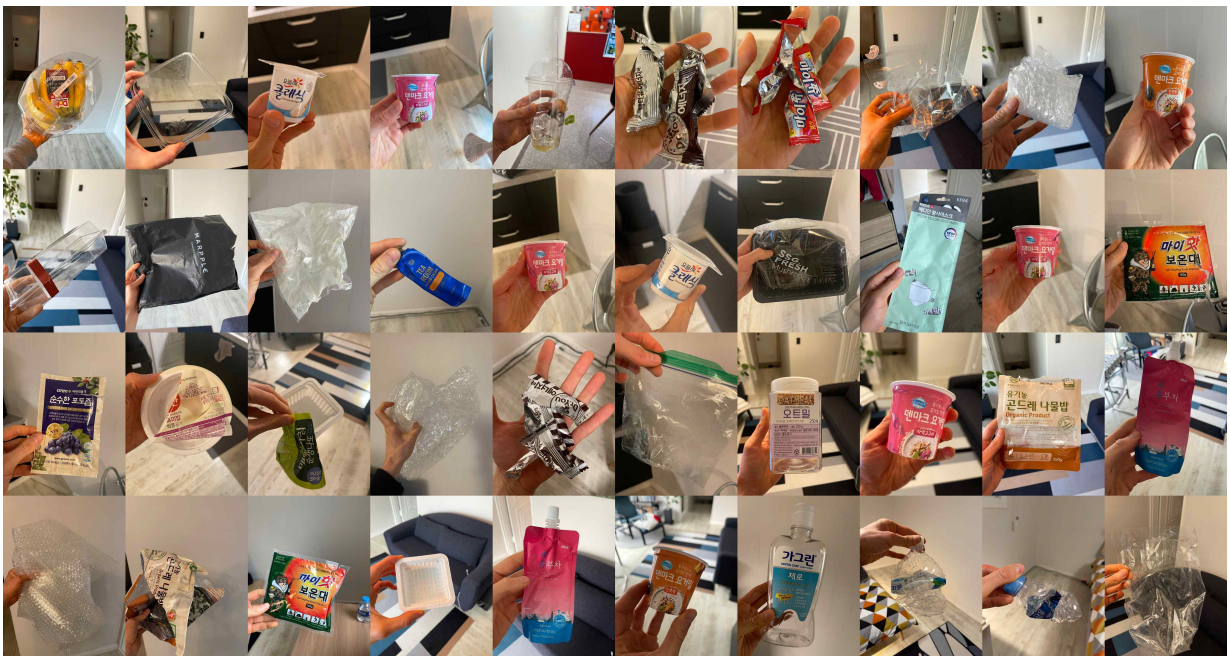
이쯤해서 슬며시 고개를 드는 궁금증 하나, 박 대표가 중간자 역할을 자임하게 된 배경이다. 환경에 관심이 많았다지만 스포츠조선에서 시작해 CJ ENM, OSEN 등의 연예 매체에서 10여 년간 일한 박 대표가 환경 전문가 못지않은 활동을 펴고 있는 이유 말이다.

"인권문제를 주요하게 담아내며 홈리스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빅이슈>라는 잡지 편집장으로 가면서 좀 더 분명해진 것 같아요. 제게 주어진 핵심 임무는 홈리스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팔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잘 팔리면서 의미도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연예부 기자로, 방송인으로 일한 경험을 살려 유명한 분들을 섭외해 그들의 목소리로 중요한 얘기를 전달하면 좋겠다고 판단했고, 실제로 연예인 분들이 참여하면서 반응이 좋아 최다 판매 기록을 여러 차례 경신했어요."

꽤 인지도 높은 '인싸'들과 참여형 인터뷰를 진행한 '섭외력'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빅이슈> 콘텐츠와 씨름하면서 확장된 영역이 인권과 동물권, 환경 분야였다.

"인권은 '동물권'으로 연결됐고, 궁극적으로 환경까지 별개의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동물 유기문제 등 지속적으로 세 영역 관련 콘텐츠를 다루면서 많이 배웠어요. 제가 했던 경험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좋은 결과로 이어지니까 정말 신나게 일했죠."

Park Hyun-min



파비앙이 기록한 쓰레기들

아이돌 31명과 함께한 영상캠페인 'KStars4Climate'

2021년 기획자로 독립한 박 대표가 진행한 프로젝트에는 《그저 플라스틱 쓰레기를 기록했을 뿐인데》를 발간하는 일 외에 또 하나가 있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해 영국대사관, 기후미디어허브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글로벌 기후변화 캠페인 '케이스타즈 포 클라이밋(KStars4Climate)'을 제작한 일이었다. 여기서도 박 대표는 마음껏 섭외력을 발휘했다.

"비투비 서은광, 오마이걸 효정, DAY6 원필을 비롯해 더보이즈, 에이티즈, AB6iX, 위클리 등 총 31명의 아이돌그룹 멤버들이 참여해 영상캠페인을 만들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아이돌이 움직이면 촬영팀, 조명팀, 메이크업팀 등 엄청난 인력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 정말 긴장했던 프로젝트였어요. 여기서도 기록이 주요 키워드였습니다. 티셔츠에 기후변화에 대한 생각을 각자 기록하게 한 다음 그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냈거든요. 아이돌의 영향력은 역시 대단했어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다는 다짐이 날아들었습니다."

이제 에코백과 텀블러에서 한 걸음 나아갈 때… 다음은 탄소발자국 기록에 도전~언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박 대표의 행보도 글로벌해지고 있다. 엔터테인먼트 분야 콘텐츠에 대한 요구가 국내외에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저 플라스틱 쓰레기를 기록했을 뿐인데>를 비롯해 박 대표가 발간한 책에 관심을 가지는 해외 바이어도 적잖은 것이다. 얼마 전 '케이북 카피라이트 마켓(KBook Copyright Market)'에서만 해외 바이어 12팀을 만났다.

앞으로 박 대표의 도전은 '프로젝트99'로 만나볼 수 있을 듯하다. 애초 경험을 공유하는 무크지 '매거진99'로 시작했다가 단독자로서의 한계를 절감하고 매거진이라는 형식을 포기했다. 하지만 <그저 플라스틱 쓰레기를 기록했

Park Hyun-min

을 뿐인데>처럼 꽉 찬 숫자 '9'로 연결된 프로젝트는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9라는 숫자 하나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연결하면 큰 수인 것 같아요. 9명이 9일 동안 실천하면 81일의 경험이 되는 것처럼요. 그 숫자에 매료돼 프로젝트 이름을 붙였는데, 《그저 플라스틱 쓰레기를 기록했을 뿐인데》가 프로젝트99의 첫 프로젝트라 할 수 있어요. 아직 98개 프로젝트가 남은 거죠.(웃음)"

그리고 다음 프로젝트99의 주제는 아마 '탄소발자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버스를 타고 출근할 때와 자가용으로 출근할 때 배출되는 탄소의 차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면 환경을 위한 새로운 실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박준우 셰프와 인터뷰에서 나왔던 주제인데, 다음은 9명이 9일 동안 탄소발자국을 기록해보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탄소세 등 주위에서 탄소라는 단어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조만간 국제무역거래에서 필수적인 경쟁력이 될 것 같은데 정작 저희는 거의 모르잖아요. 만약 연예인 9명이 9일 동안 이 탄소발자국을 기록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컴퓨터로 일할 때나 조명, 전기가전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탄소를 계산할 수 있다면, 혹은 버스를 타고 출근할 때와 자가용으로 출근할 때 배출되는 탄소의 차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면 환경을 위한 새로운 실천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인들과 자주 탄소발자국 계산 애플리케이션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은 늘 누구라도 좋으니 개발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귤이 어떤 방식으로 생산돼 어떤 경로로 왔는지처럼 상품 소비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유통 시스템으로 인해 결코 쉽지 않겠지만 하나하나 해보고, 계산해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면 분명 '에코백과 텀블러 사용'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05

‘채키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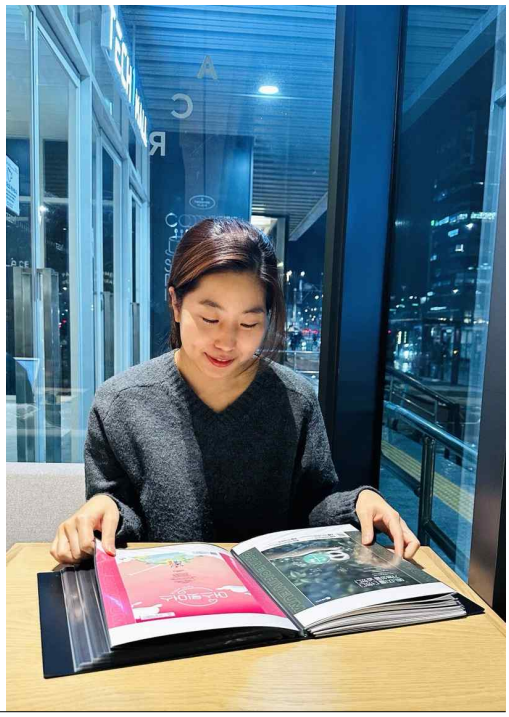
임소아

에코 큐레이터

2022 ARCHIVING BOOK

Lim SoA

코로나19로 절감한 환경문제 기업 광고 아카이빙은 나의 작은 실천



기업 환경 관련 광고
디지털 아카이브 '채키비움'
임소아 에코 큐레이터

도서관과 박물관, 기록관.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이 세 기록문화기관의 성격과 특징을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압축해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을 일컫는 용어가 있다. '라키비움(Larchiveum)'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소나 시설을 뜻하는 복합문화공간 개념으로도 많이 사용되고 이 라키비움을 자신만의 기록방법으로 차용하고 있는 이가 있다. 국내 대표적인 IT생태계로 꼽히는 경기 판교에 위치한 판교환경생태학습원에서 일하고 있는 임소아 과장이다. 2020년부터 신문에 실리는 기업들의 환경 광고를 아카이빙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채키비움'을 통해서다. '광고는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응,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라 말하는 임 과장과 채키비움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Lim SoA

임소아 과장과 그의 든든한 도우미인 남편의 모습

"라키비움? 내가 한 번 해볼까?"

Q: 우선 '채키비움'이라는 이름이 새롭고 감각적입니다. 어떤 의미를 담으셨을까요?

A: 도서관(library)과 기록관(archives), 박물관(museum) 이 세 기관의 성격과 특징을 결합한 용어인 '라키비움(Larchiveum)'에서 착안했어요. 박물관학을 전공해 산악박물관 등 문화예술 분야 기관에서 일해왔는데, 기록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죠. 워낙에 도서관도 좋아했고요. 7년 전쯤인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라키비움 관련 강의에 참석하면서 세 분야를 아우르면 이상적이겠다 생각했는데, 주위에 제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이나 매체가 없더라고요. 내가 한 번 해보자 했죠. 글자 중에 '채'는 남편의 이름 중 한 글자를 땄어요.(웃음)

Q: 아, 채키비움의 비밀이 이제 풀렸네요.(웃음) 환경 분야에 대한 관심은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A: 산악박물관에서 숲교육, 찾아가는 환경교육 등 문화행사를 기획하곤 했는데, 명칭만 다를 뿐 환경 분야가 전공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또 남편이 환경 분야 전공자라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평소 신문에, 환경 관련 정책이나 특별한 소식을 보면 알려주고, 남편은 유엔환경계획 자료들을 번역해주었는데, 저희만 공유하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게 발전돼 2022년에 채키비움을 만들게 됐어요.

기록물로, 환경교육 재료로 눈에 들어온 신문 환경 광고

Q: 2020년에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을까요?

A: 정확한 시점은 코로나19 감염병이에요.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와 우리의 일상을 뿌리부터 흔들었잖아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감염병 재난 앞에서 앞으로 환경문제가 우리의 삶을 가장 위협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연스레 문화기획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이 깊어졌어요. 문제는 환경 실천이 너무 멀고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기후위기, 북극곰… TV 같은 여러 매체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정보는 사실 실감이 되지 않으니까요. 환경문제에 가까이 가기 위한 좀 쉬운 방법은 없을까 하다가 신문에 실리는 기업의 환경 관련 광고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Q: 특히 신문 광고에 주목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A: 신문을 보는 게 취미였어요. 광고는 기본적으로 제품

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마케팅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 예를 들어 환경이나 공동체,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메시지로 광고에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그게 신선했어요. 고도화된 산업화로 신문 광고의 영향력은 줄고 있는 시대예요. 신문을 구독하는 이들은 급격히 감소했고, 신문사 대부분은 3개월이 지나면 신문을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기록물로써 가치가 있다고 본 동시에 교육자료로도 희소성이 있겠다 싶었어요. 이직하고 나서 NIE교육을 떠올리며 신문을 콜라주 재료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보면 유용하겠다 했는데, 주위를 돌아보니 신문을 보는 가정이 없는 거죠. 전통적인 광고매체인 신문은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 수월하게 아카이빙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는데 말이죠. 그러면 내가 모아보자 생각했고, 판교에 위치한 기업 중 환경 정책이나 캠페인을 하는 곳들의 광고를 위주로 스크랩을 하기 시작했죠.
또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기업의 실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훨씬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 같더라고요. 기업이 스스로 '친환경'을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여기는 '그린워싱'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광고가 이를 위한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평소 신문에
환경 관련 정책이나
특별한 소식을 보면 알려주고,
남편은 유엔환경계획 자료들을
번역해주었는데,
저희만 공유하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그게 발전돼 2022년에
채키비움을 만들게 됐어요.

임소아 과장이 기업 환경 광고를 인화해 아카이빙한 스크랩북

(재)숲과나눔 지원으로 아카이빙 비용 부담 덜어

Q: 채키비움의 활동 과정을 굵직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A: 처음엔 판교에 입주해 있는 기업 가운데 환경 관련 정책이나 캠페인을 진행하는 곳을 위주로 스크랩을 했어요. 그러다 제가 직접 접할 수 있는 한국경제신문과 조선일보, 이렇게 두 개 신문의 광고를 집중적으로 선별해 아카이빙했어요. 먼저 오프라인 신문에서 실물 광고를 1차 확인하고 스크랩을 해요. 그게 네다섯 장 정도 쌓이면 두 신문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해 해당 일자 신문 지면을 확인해서 고화질로 이미지를 저장하고요. 이어서 편집 사이트에서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업로드용으로 적당한 크기의 이미지 파일로 편집해서 업로드하고 있어요. 고화질로 프린트한 실물 광고, 온라인 플랫

폼에 올릴 수 있는 편집된 이미지 파일 등 두 가지로 관리하는 거죠.

특히 인스타그램의 경우 특성상 게시물 검색이 되지 않아 오래된 게시글의 경우 상위에 노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별 광고 이미지를 인스타 스토리로 올려서 그룹핑하였고, 인스타 게시물을 블로그에 스크랩해 검색 기능과 유입 루트를 확보하려 했어요. 이 과정에서 남편의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웃음)

Q: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아카이빙한 결과물은 어떻게 되나요?

A: 현재까지 고화질 이미지를 출력해 정리해놓은 스크랩북이 3권이고요, 연 100개 정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기업 환경 광고들이 있어요.

Q: 그 과정에서 외부의 지원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A: 네, 지난 오프라인 신문과 디지털 신문을 일일이 확인하고 편집하다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기록을 축적하면서부터는 기본적인 관리 비용이 발생했는데, 채키비움 계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면서는 점점 벅차더라고요. 편집한 사진을 인화할 때 원본 사진파일의 화소가 낮으면 이미지가 깨질 수 있어요. 때문에 전부 고감도 컬러 출력용으로 저장해 프린트한 후 포토북처럼 스크랩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요. 또 신문 실물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상자나 신문 보존 폴더, 산화 방지 종이 등도 필요하고요. 이 정도만 해도 200만 원이 훌쩍 넘는 거예요.

비용 문제에 직면하면서 해법을 찾다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과 캠페인을 지원하는 (재)숲과나눔을 알게 됐어요. 채키비움 활동을 제안서에 담아 지원사업에 신청했는데, 감사하게도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기업이 스스로 '친환경'을 단순한 마케팅 수단으로 여기는 '그린워싱'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소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광고가 이를 위한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재)숲과나눔의 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임소아 과장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피드백 받으면서 활동 동력 얻기도 해

Q: 활동 결과물에서 많은 기업 환경 광고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기업 환경 광고를 꼽아주신다면?

A: 지금 떠오르는 건 2개인데, 하나가 SK예요. 8개 그룹사들이 참여하는 '어스윗어스(earth with us)'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Energy 챌린지, Table 챌린지, Waste 챌린지, Green 챌린지, Move 챌린지 등 5개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생활 속 실천 방법을 광고에 잘 담아냈더라고요. 셀럽들이 챌린지 미션에 함께하는 모습도 재미있었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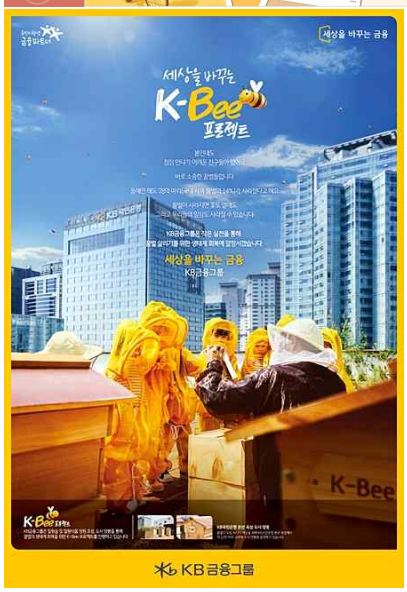
또 하나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고 있는 꿀벌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K-Bee' 프로젝트,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K-BAB' 프로젝트, 환경 보호를 위한 'K-Bag' 플로깅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된 KB금융그룹의 '코리아 베터(Korea better) 캠페인'도 아주 좋았어요. KB금융그룹 본점 옥상에 설치된 양봉장 사진으로 만들어진 'K-Bee' 프로젝트 포스터는 화제였죠. 이 캠페인은 2022년 서울광고대상에서 ESG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어요.

확실히 코로나19 이후 기업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참여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신문 환경 광고를 보면 매일매일 선물을 받는 느낌… 책 출판이 목표

Q: '에코 큐레이터'로도 불리시는데, 어떤 의미가 담긴 명명일까요?

A: '환경'이라고 하면 어려운 주제가 많다는 생각부터 들어요. 캠페인이나 광고 같은 경우도 극단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고요. 제 경우도 관심이 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언가 무섭기도 하고,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해주겠지' 하며 막연하게 미루는 정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 관련 활동이 문화예술처럼 즐겁고 다가가기 쉽게 접목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은 블로그에 라키비움 관련 자료들을 업로드하면서 문화예술과 환경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SK의 '어스윗어스' 챌린지와
KB금융그룹의 'K-Bee' 프로젝트 포스터

Lim SoA

비용 문제에 직면하면서
해법을 찾다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공익 활동과 캠페인을 지원하는
(재)숲과나눔을 알게 됐어요.
채키비움 활동을 제안서에 담아
지원사업에 참여했는데,
감사하게도 선정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Q: 마지막으로 채키비움 활동을 하면서 얻은 성취와 함께 아카이빙 관련해 고민 중인 개인적인 구상이나 계획을 들려주세요.

A: 성취를 꼽자면 축적된 아카이빙 결과물, 소셜미디어에서 경험하는 뜻밖의 소통이에요. 신문 광고 업로드 이후에 해당 광고를 기획하신 담당자분이 인스타그램 친구 추가와 함께 개인 메시지로 반가운 연락을 주시는 신기한 경험을 해서 특히 기억에 남아요.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 스스로 뿌듯하죠 동시에 '더 잘해야지' 하는 자극도 받고요. 이것이 채키비움 활동을 지속하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와 함께 매일매일 선물을 받는 느낌이랄까, 신문을 보는 게 점점 즐거워지는 것도 좋아요. 현재 시점으로 채키비움의 가장 큰 목표는 2022년 자료까지 정리해 전자책으로라도 출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쓸모가 있으려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주제별로 카탈로깅을 해서 올리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 편할 거 같은데, 그러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을 활용하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렇게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카이브 전시'도 해보고 싶어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가 사라지더라도 자료로 보존될 수 있도록 편집 사진으로 인화해서요.

이 과정에서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나 광고기획자, 환경 전공자, 기록에 관심 있는 분들과 네트워킹 그룹을 구성해 담론을 나누는 장도 만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다보면 더 현실적인 환경 실천과 기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재)숲과나눔 지원사업에서 발표하고 있는 임소아 에코 큐레이터

06

《쓰레기책》 저자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2022 ARCHIVING BOOK

Lee Dong-hak

소비라고 쓰고 쓰레기라 읽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쓰레기책》 저자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

쓰레기 무덤, 《쓰레기책》, 33쪽, 이동학, 2020.

그 많던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갔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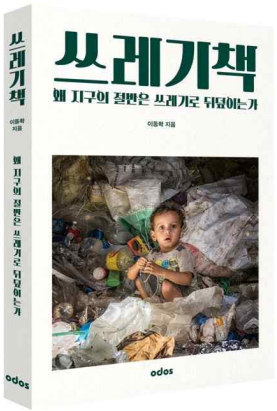
오늘날 평범한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옷이나 물병, 장난감, 볼펜 같은 수많은 제품들이 주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 이 말은 동시에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한다면 그것은 플라스틱이라는 말이기도 하다. 지구 인구가 80억 명에 육박하고, 그 인구는 자꾸 도시로 몰린다. 최근에는 그 도시에서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그에 비례해 소비도 늘고, 플라스틱 사용량도 늘고, 쓰레기가 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땅을, 바다를, 급기야 인간의 몸을 잠식하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말이다.

그런데, 소비는 눈에 보이는데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갔는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쓰레기책》의 저자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를 만났다.

"우리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어디론가 잘 갔겠거니 무심코 생각할 뿐이죠."

이 대표는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 무심코 넘기지 않은 몇 안 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2017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1개국 157개 도시를 돌면서 그는 지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목격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하고 시급한 일이 쓰레기 문제라고 생각해 《쓰레기

책》을 펴내고, 지구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는 시민단체 '쓰레기센터'를 만들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쓰레기책》

우리는 쓰레기가
어디로 가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어디론가 잘 갔겠거니
무심코 생각할 뿐이죠.

지구촌장, 시찰 여행을 통해 지구인 감각을 익히다

이동학 대표의 가장 높은 직책은 지구촌장이다. 2017년 지구 전체를 돌아보는 '시찰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에게 지구촌장으로 임명됐다. 살면서 어떤 말단의 저항과 노력보다도 정신 똑바로 박힌 정치가, 공정한 법률이 세상을 바꾸는 데 훨씬 더 유효한 도구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았던 이 대표는 그런 정치나 제도를 관장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자고 마음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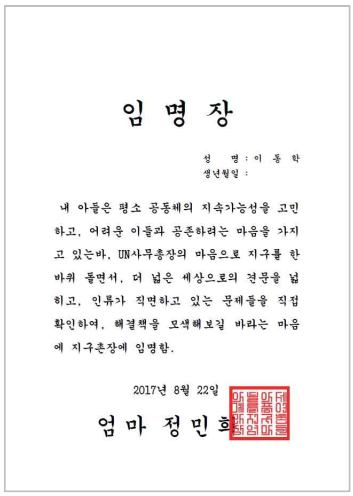
이 대표는 어쩌다 지구인으로서의 감각과 삶을 살게 되었을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가늠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1996년 중학교 3학년 어린 이동학을 만나야 한다.

"중학교 때 간병인이셨던 어머니를 따라 충청도에 있는 '꽃동네'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받은 충격이 잊히지 않아요. 살면서 그렇게 많은 장애인들을 한꺼번에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거기를 한 바퀴 돌아보고는 급식봉사를 했어요. 계란후라이를 엄청 튀기고 돌아온 그날, 되게 많이 울었어요. 몸이 불편하고, 자기 힘으로 먹을 수가 없는 사람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들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된 이동학 대표는 학생회장을 맡았다. 머리카락이 조금만 길면 선생님이 '바리깡'을 들고 잘라 버리곤 하던 시절이었다. 그는 '학칙이 엄연히 있고 학생이 그걸 어겼으면 선생님이 그 정도 해도 되지 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는 학생회장인데 왜 우리를 대변하지 않아?" 라며 따지는 친구의 말에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것처럼 얼얼했다.

"그때부터 헌법과 인권을 공부했어요. 얼마나 많은 부당한 일이 우리 주위에 있는지 깨닫고 그걸 바로잡으려고 보니 저절로 운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학교뿐 아니라 주변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두발 자유화'를 외쳤어요. 어떤 친구는 삭발투쟁을 했고, 저는 대놓고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지요.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소용이 없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다가, 어느 날 선생님들이 먼저 대화를 하자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학생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학칙을 다시 정해라'는 지시사항이 담긴 공문이 내려온 거였어요. 그 공문이 어디서 왔는가 봤더니 정치인들이 논의해서 내린 결정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정치가 올바른 결정을 하면 세상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일이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입니다."

Lee Dong-hak



임 명 장

성 명 : 이 동 학
생년월일 :

내 아들은 평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어려운 이들과 공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바, UN사무총장의 마음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더 넓은 세상으로의 견문을 넓히고,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직접 확인하여, 해결책을 모색해보길 바라는 마음에 지구촌장에 임명함.

2017년 8월 22일

엄 마 정 민 희

지구촌장 임명식과 임명장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해야 하는 일

이 대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바로 해병대에 입대했다. 그가 열세 살 때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국가유공자 자녀라 학비를 지원받고, 군대도 공익근무 6개월만 복무하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국가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고 생각한 그는 갚고 싶은 마음으로 해병대를 자원했다.

"훈련소 입소 후 2주쯤 지났을까, 교관이 새벽에 400명 쯤 되는 훈련생을 운동장에 소집한 거예요. 그러고는 '아버지 없는 사람 일어서!' 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삶이 쉽지는 않았던 저는 저처럼 힘들게 산 경우는 별로 없겠지 하면서 쭈뼛쭈뼛 하고 있는데, 옆에서 우르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서로 '이게 뭐지? 이렇게 많다고?' 할 만큼이요. 이어 '어머니 없는 사람 일어서!' 하는데 또 엄청 많았어요. 마지막으로 교관이 '둘 다 없는 사람 일어서!' 하는데 한 40여 명이 일어나더라고요. 순간 '와, 저런 애들이 있네' 했어요. 저는 형편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실업계 학교를 가야 했지만 한편으로는 재미있기도 했거든요. 어머니가 계셨으니까. 처음으로 부모 모두 안 계시다는 건 뭘까, 그 고단했을 삶들을 곱씹어보았던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 대표는 '낮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세상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면서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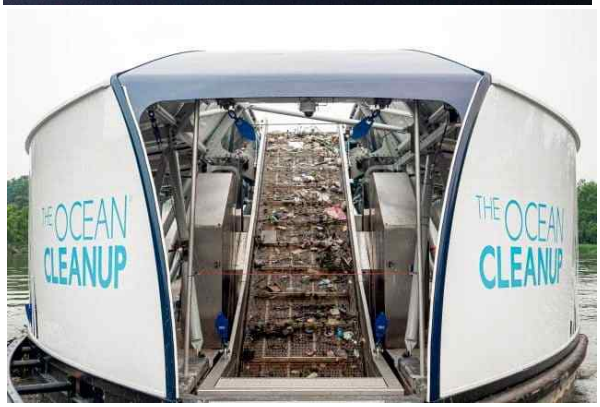
지구여행을 떠나다

2012년, 청년 이동학은 '다준다 청년정치연구소'를 만들었다. '다준다'는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다른 연구소'라는 뜻. 이름에 걸맞게 10년 뒤, 20년 뒤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초고령화 문제'에 꽂히게 되었다. 공부할수록 초고령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 생각했다.

"사회적으로 모셔야 할 분들이 많아지고,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면서 파생하는 초고령화 문제는 필연적으로 세대간 갈등으로 연결되겠다고 판단했어요. 해법은 두 가지, 더 걷거나 덜 주는 방법뿐이잖아요. 모두 충돌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그 충돌의 양상이 몹시 클 것으로 예상되었죠. 의료, 복지, 연금, 일자리, 거의 모든 분야에서요. 그러면 정치는 그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어떻게 서로서로 양보하게 만들 것인지, 구성원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 아량을 넓히게 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지, 다른 나라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자연스레 초고령화라는 사회적 현상으로 어떤 갈등이 생기고 있고, 그걸 해결한 나라의 해법은 무엇이었는지, 그걸 못 넘어간 나라는 어떤 어려움을 맞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오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Lee Dong-hak

지구 여행 중인 이동학 대표



강 청소기 인터셉터

10년 뒤, 20년 뒤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과정에
'초고령화 문제'에 꽂히게 되었다.
공부할수록 초고령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리라 생각했다.

한 번 보이기 시작하면 눈을 감을 수 없는 쓰레기 문제

그렇게 글로벌 여행 프로젝트에 나선 이 대표는 아이슬란드에서 한 오스트리아 친구가 다 먹고 난 쓰레기를 한 번에 쓰레기통에 '때려 넣는' 모습을 보았다. 그 친구에게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 분리수거 하냐 물으니 '그냥 버린다'는 답이 돌아왔다. 곧 '그럼 이 쓰레기는 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물음이 뒤따랐다. 그때 쓰레기 문제에 꽂혀 여기저기 파고 다니던 이 대표는 지구의 건강한 미래라는 틀 안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쓰레기 문제가 결코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몽골 하면 드넓은 초원에 야생마가 뛰노는 장면을 상상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쓰레기산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를 매립이나 소각도 아니고 그냥 던져놓고 쏟아놓고 있었어요."

그가 목격한 쓰레기 문제는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나 거대하고 심각했다. 막대한 쓰레기 양도 양이지만 그것이 자국에서 해결되지 않아 다른 나라로 보내지는 것도 큰 문제였다. 《쓰레기책》에 따르면 최근 5~6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전체 쓰레기의 78%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다. 그러다 2018년 1월부터 중국이 더 이상 쓰레기

를 수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쓰레기의 대이동시대가 표면적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쓰레기가 계속 배출되고 있어 어딘가에 버리거나, 그대로 방치되는 양상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중국이 세계의 쓰레기통 역할을 중단하자 쓰레기를 실은 컨테이너선들은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몰려갔습니다. 부패한 권력, 소홀한 관리를 틈타 이들 나라의 항만엔 쓰레기 컨테이너가 쌓이기 시작했죠. 각국의 환경장관, 항만 관리자들은 외신에 이러한 현실을 고발하며 쓰레기를 되가져가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땅뿐 아니라 바닷속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건 마찬가지. 매립이든 소각이든 쓰레기를 더 이상 육지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게 된 나라들에서는 강에다 트럭채로 갖다 버리고 있었다. 그는 수십 대의 트럭이 거침없이 쓰레기를 강에다 내리꽂는 현장을 눈앞에서 목격하기도 했다.

"왠지 쓰레기를 강이나 바다에 버리면 둥둥 떠다닐 거 같죠? 그렇지 않아요. 쓰레기가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물속 깊이 들어가서 보이지 않아요. 물살을 따라 가다가 어디에선가 떨어지겠죠. 믿어지지 않겠지만 이게 지금 우리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도도히 흐르는 강은 그 쓰레기가 닿자마자 순식간에 휩쓸어가 버린다. 그렇게 사라진 쓰레기는 흐르고 흘러 바다로 간다. 태평양에는 이미 'GPGP(Great Pacific Garbage Patch)'라는 거대한 쓰레기섬이 떠다니고 있다.

몽골 하면 드넓은 초원에
야생마가 뛰노는
장면을 상상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쓰레기산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쏟아지는 쓰레기를
매립이나 소각도 아니고
그냥 던져놓고 쏟아놓고 있었어요.

해결의 실마리

《쓰레기책》에서는 이 대표가 발견한 문제뿐 아니라 각 나라에서 시도하고 있는 크고작은 해법들을 함께 전하고 있다. 네덜란드 고등학생 보얀 슬랫(Boyan Slat)이 그리스 바닷가로 피서를 갔다가 바다 속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보고 '오션클린업(The Ocean Cleanup)'이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든 것이 하나의 사례다.

"오션클린업에서는 크게 두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하나는 동남아시아, 중남미 국가들에서 바다로 나가는 강줄기로부터 쓰레기를 거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태평양, 일명 'GPGP'에서 쓰레기를 치우는 것입니다. 대개 해양쓰레기는 개발도상국의 강줄기를 통해 유입되기 때문에 그 원인 지역을 사수하고,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태평양의 쓰레기를 제거하는 노력이죠."

Lee Dong-hak

이 프로젝트에 40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낙하산 모양으로 해수면에 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쓸어 담는 해양 청소기 '시스템001(System001)'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2019년 10월에는 강 청소기인 '인터셉터(The Intercepter)'라는 배를 개발했다. 인터셉터는 버려진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기 전 강 하류에서 폐기물을 가로채는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 국가 차원에서 비닐봉지를 금지하는 나라도 있었다. 우간다에서 르완다로 버스로 넘어가는 중 검문에서 이 대표는 비닐봉지를 빼앗겼다.

"국경 검문에서 마약이나 총기류가 아니라 비닐봉지를 검사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르완다뿐일 거예요. 르완다는 마트에서 장을 봐도 종이백에 담아주는 것이 일상화된 나라입니다. 비닐봉지가 남발되어 하수구를 막고, 이것을 태우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비닐봉지를 아예 금지해버린 것입니다. 케냐보다 약 10년이 앞선 2008년의 일입니다. 기존의 비닐봉지 생산업체에 보조금을 주어 종이봉투회사로 전환시키는 등 '독재국가답게' 강력하게 비닐봉지 억제정책을 밀고 나갔습니다."

이러한 '똑똑한' 정책 덕분에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는 '이동학 지구촌장'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됐다. 그밖에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들거나, 도시 안에서 쓰레기가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이 자리잡게 하는 방법, 쓰레기를 덜 배출하게 강제하는 여러 제도 등 다양한 해법들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다.

국경 검문에서
마약이나 총기류가 아니라
비닐봉지를 검사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르완다뿐일 거예요.
비닐봉지가 남발되어 하수구를 막고,
이것을 태우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자
비닐봉지를 아예 금지해버린 것입니다.

여행의 방식-직접 겪고 기록하기

이렇게 한 나라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려면 적잖은 준비가 필요하다. 궁금한 주제와 관련해 가장 '솔직한' 현장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딘지, 그 현장과 연결된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나 담당자는 누구인지 인터넷 검색으로 미리 살핀 그는 이메일을 보내 미리 사전 약속을 잡고,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연결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들을 들여다보았다. 인터뷰를 할 때에는 수첩에 쓰거나 녹음을 하고, 현장에 가서는 사진과 영상을 수도 없이 찍었다.

부직포 가방이 걸려 있는 케냐의 대형마트, 《쓰레기책》, 90쪽, 이동학, 2020.

케냐에서 행사에 참여하면서 영상으로 촬영하는 이동학 대표

Lee Dong-hak

"꽁꽁 언 바이칼호수에 갔을 때 얼음 위에서 뛰고 눕고 하면서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숙소로 와서 보니 핸드폰이 없어진 거예요. 그 폰으로 찍은 사진과 영상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죠. 다시 갈 수도 없던 터라 망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사진, 영상들은 거의 건졌지만 아쉽게도 텍스트 기록들은 다시 써야 했죠. 바로바로 외장하드에 백업을 해두는 편이라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록이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진땀이 납니다."

아일랜드에서 인터뷰하면서 수첩에 기록하는 중이다.

지구여행에서 돌아와 만든 《쓰레기책》과 캠페인을 위한 티셔츠

그는 어딘가를 가서 보고, 누군가를 만나서 듣고 한 이야기들을 여행지에서 바로 정리한다. 노트북에 그 나라별 폴더를 만들고, 그 하위에 도시별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해 두는 것이다. 현장에서는 주제별로 정리해 놓거나 별다른 분류를 하지 않는다. 가장 큰 질서를 제대로 지킴으로써 서로 다른 매체에서 생산된 기록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2년 반 동안의 지구촌 대장정을 끝내고 돌아와서 바로 《쓰레기책》을 펴낼 수 있었던 것도 기록의 힘이었다.

수상한 플라스틱의 기록

이 대표는 지구 전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플라스틱 생산량' 지표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은 시골에서 도시로,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이동하는 흐름이 또렷하다. 동시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쪼개지고 있다. 그는 이러한 경향성이 플라스틱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거지를 이동할 때 쓰레기가 정말 많이 배출됩니다. 과밀화되면 쓰레기가 한 번에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소비도 증가합니다. 4인 가구가 한집에 살 때는 화장실 하나, 비누곽도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 구성원이 네 가구로 쪼개지면 각각의 화장실과 비누곽이 필요해지고, 늘어난 소비는 고스란히 쓰레기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가장 큰 질서를
제대로 지킴으로써
서로 다른 매체에서 생산된
기록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2년 반 동안의 지구촌 대장정을 끝내고
돌아와서 바로 《쓰레기책》을
펴낼 수 있었던 것도 기록의 힘이었다.

Lee Dong-hak

쓰레기,
평생을 다루어야 할 숙제

이 대표에게 쓰레기 문제는 평생을 다루어야 할 이슈이다. 보지 못했다면 나서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목격했기에 인간과 동물,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다. 현재 이 대표가 이끌고 있는 쓰레기센터가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쓰레기는 자본주의의 산물입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와 싸울 수는 없습니다. 대신 어떤 세상을 그려 봅니다. 그 세상에서는 쓰레기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비를 하더라도 쓰레기를 덜 만드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가 사라지고 식당이나 카페, 마트나 편의점 모두 재사용 가능한 다회용기를 씁니다. 사람들은 가방에 자기 그릇들을 들고 다니겠지요. 그런 게 불편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그릇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거고요. 그래도 발생하는 쓰레기가 있다면 그 지역에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구축돼 있습니다. 지금처럼 거대한 도시에서 생산된 쓰레기가 작은 도시로, 선진국의 쓰레기가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지요."

올해 쓰레기센터는 쓰레기를 화두로 한 글로벌네트워크를 만드는 일에 집중할 예정이다. 가장 많은 해양쓰레기를 배출하는 나라가 동남아시아에 모여 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쓰레기 환경에 대처하는 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시로 회의하는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이슈를 촉구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연대활동이 될 것이다.

1950년 200만 톤이었던 플라스틱 생산량은 2020년대 접어들어서는 연간 4억 톤으로 늘었다. 증가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이 대표는 원인을 줄이거나, 결과를 개선하는 것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원인을 줄이는 영역은 다회용 용기를 쓰는 등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고, 결과를 개선하는 영역은 대량쓰레기 처리 시설과의 공존을 감수하는 것 등이 해결책이 될 것이다. 2023년에도 소비라 쓰고 쓰레기라 읽으며 해법을 모색하는 활동,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이 대표와 쓰레기센터의 뚜벅이 걸음은 계속될 예정이다.

쓰레기 무덤 앞에서 이동학 대표

이동학 대표는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정치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07

지구를 위한 노래를 부르는 가게 'SONG for Earth'

송정화
대표

2022 ARCHIVING BOOK

Song Jung-h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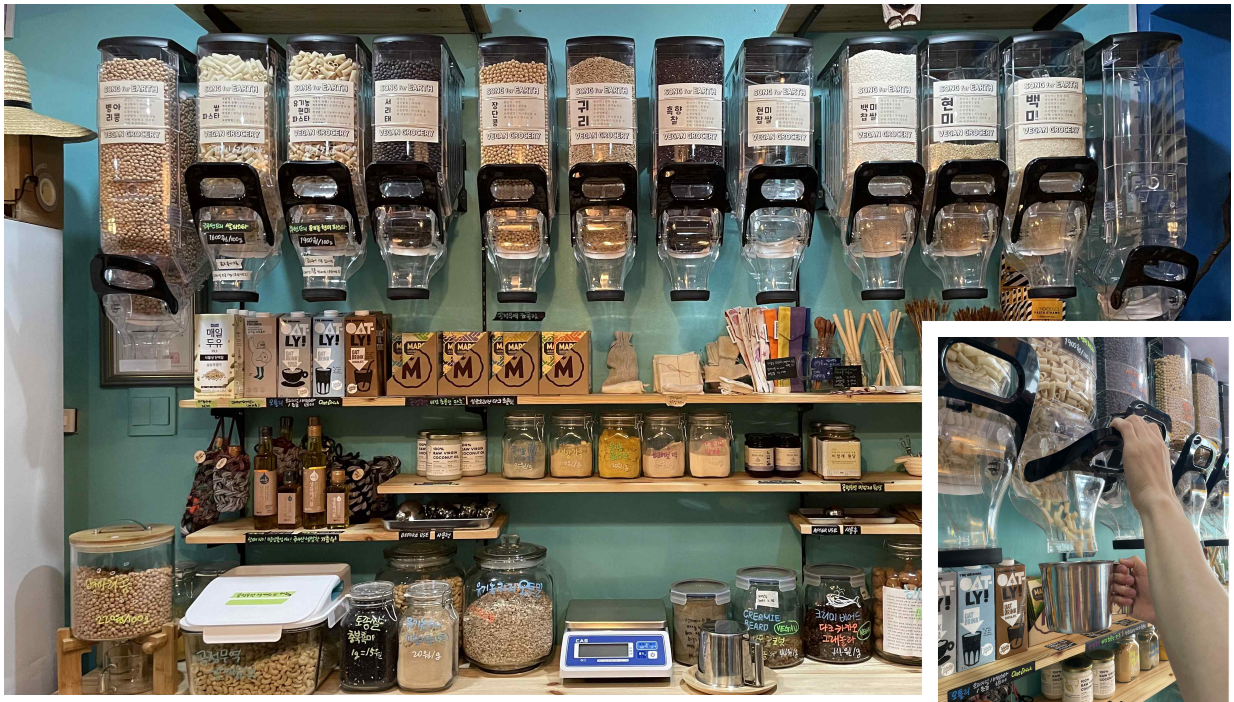
쓰레기 없는 삶을 넘어 건강한 에코페르소나의 삶으로

'SONG for Earth'
송정화 대표

'송포어스(SONG for Earth)'는 서울 강동구에 최초로 생긴 제로웨이스트숍이다. 문을 연 2020년 6월 당시만 해도 '쓰레기 없는 용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장이 거의 없었다. 게다가 채식 식료품을 함께 다루는 매장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도 소비가 가능할까? 그걸 가능하게 하는 물건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질까. 송포어스 송정화 대표를 만나러 가는 길에는 수많은 궁금증이 쏟아졌다.

송포어스 매장에서 만날 수 있는 친환경 생활용품들

Song Jung-hwa



송포어스 매장 안, 이용자가 용기를 가져오면 곡식들을 소분해서 사갈 수 있다.

지구를 위한 노래가 골목골목 흐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SONG for Earth'

송포어스는 우리가 소비를 통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여러 실험을 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매장이다. 제로웨이스트는 영어로 숫자와 쓰레기를 뜻하는 '0(제로)'과 'waste'가 합쳐진 말로, 쓰레기 없는 삶에 대한 의지를 압축하고 있다. 송포어스에서는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같은 세제나 쌀, 밀가루, 콩 같은 곡식, 커피콩 등이 필요할 때 이용자가 재사용이 가능한 통에 직접 덜어가는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 밀랍과 천으로 랩을 만들어 비닐랩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 비누나무 열매를 활용해 세제를 만들어 화학세제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 등 쓰레기나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도 풍요로운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교육활동에도 열심이다. 해마다 친환경으로 농사짓는 농가들 가운데 판로가 잘 확보되지 않았거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농산물들을 공동구매하고 비건쿠키, 만두, 소스, 페스토, 밀크티 등 채식 식재료로 만든 여러 가지 비건 음식들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다.

친환경과 채식의 시작

송 대표의 친환경 채식 생활의 역사는 꽤 깊다. 아직 제로웨이스트나 비건이라는 용어가 낯설던 시절부터 시작된 행보였다. 그는 어쩌다가 제로웨이스트 용품과 비건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을까?

"스무 살 무렵 다큐멘터리를 잘못 봤어요.(웃음) 생태마을을 이루고 사는 독일의 도시 프라이부르크를 담은 다큐멘터리였는데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집 바로 뒤에서 텃밭을 가꾸는데, 거기에는 퇴비장이 있었어요. 텃밭에서 먹을거리를 길러서 먹고, 나온 음식물쓰레기는 퇴비장에서 발효시켜 흙으로 돌려보내고, 태양에너지로 난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재수생이던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 하고 있었는데, 그 다큐멘터리 덕분에 뭔가 삶의 지향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생태마을 관련 학과가 어떤 게 있는지 막 찾았어요.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게 조경학과였어요."

조경학과가 최근에는 자연과 친환경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대표가 대학에 들어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아직 생태마을과 관련한 수업이나 배움의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학과에는 크게 정을 붙이지 못하고 '보라'라는 환경동아리 활동에 열심이었다. 그때 채식에 관심을 가지고 축제 때면 콩고기 시식회도 하고, 환경 관련한 짤막한 영상을 만들어 시사회를 갖기도 했다. 또 한 편의 다큐멘터리 <목숨 걸고 편식하다>라는 자연 다큐멘터리도 그에게 오래도록 파동을 일으켰다. <목숨 걸고 편식하다>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뻔했다가 편식을 통해 가까스로 살아 돌아온 두 남자의 이야기와 함께, 생활습관병으로 시들어가는 환자들의 육신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자 자연식으로 편식 처방을 내리는 의사의 분투기가 실려 있었다.

"그밖에도 많은 다큐멘터리들이 지금 제가 하는 활동에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아까 말한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 관련한 다큐멘터리와 지식채널e, <목숨 걸고 편식하다> <자본주의> 다큐멘터리 4부작, 서울환경영화제들을 통해 생태도시, 햄버거 커넥션, 생물다양성 감소, 팜유, 플라스틱, 쓰레기 등을 주제로 한 현장의 모습들이나 전문가 인터뷰를 생생한 영상을 만날 수 있었지요. 다큐멘터리는 저에게 비행기를 타지 않고,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태, 환경 관련 일들을 알게 해주는 소중한 통로였습니다."

**텃밭에서 먹을거리를 길러서 먹고,
나온 음식물쓰레기는
퇴비장에서 발효시켜 흙으로 돌려보내고,
태양에너지로 난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나한테 좋은 물건이 지구한테도 좋다!

공동체와 친환경, 채식을 화두로 삼으면서 지내던 와중에 송 대표는 공부로만 알던 그 모든 것들을 삶에서 실천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2016년 6월 엄마가 유방암을 진단받은 거예요. 그때부터 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활용품이나 생활습관, 먹거리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목숨 걸고 편식하다>라는 다큐에 나왔던 황성수 박사님이나 자연 식물식으로 암을 고쳤다는 분들 이야기도 다시 찾아봤죠. 그러면서 우리가 쓰는 물건들에 얼마나 해로운 화학물질이 많은지 알게 되었어요. 곧바로 집에 있는 세제, 폼클렌징 이런 거 다 천연화장품으로 바꾸고, 비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고, 엄마가 먹는 식단도 채식 위주로 바꾸었고요."

당시 1년 넘게 암요양병원에 입원한 어머니는 주변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기도 했다. 주위 환자들에게는 생활용품이나 먹을거리에 문제가 있으니 그걸 다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살갑게 챙겨주는 아들, 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암 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막막함을 너무 잘 아니까 이게 정말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어렴풋이 이런 실천이 꼭 필요하겠다,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거 같아요. 지구한테 좋은 거면 엄마한테, 나한테도 좋은 것이 되는구나 하는 믿음도 생겼고요. 송포어스도 그 믿음에서 싹을 틔웠어요."

모두에게 좋은 제로웨이스트 용품 분별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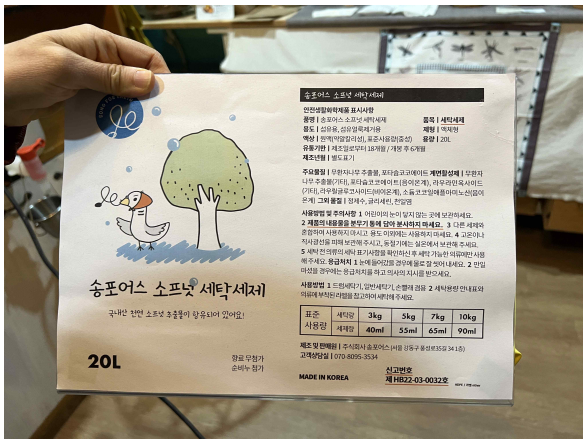
화장품이든 먹을거리든 모든 물건에는 전체 성분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원재료라고 쓰여 있거나, 소재, 전성분이라고 쓰여 있기도 한다. 자기 몸과 마음, 그리고 지구 전체에 이로운 물건을 쓰기 위해서는 송 대표는 전성분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엄마가 암 진단을 받은 뒤부터는 사용하는 모든 용품과 먹을거리의 전성분을 다 살펴보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문제 있는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는지, 제가 선호하지 않는 성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향을 내는 성분들 가운데 위험한 건 없는지 등을 살펴요. 그리고 제조사에 물어봐요. 내가 쓰고 싶은 성분, 내가 안 쓰고 싶은 성분을 기준으로 그런 성분을 사용하는지, 제조 과정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일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거죠. 원숭이를 학대하면서 코코넛 따는 훈련을 시키고, 코코넛오일을 만드는 게 합법적인 나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노동자가 정당한 임금을 받고,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 공정무역 상품이 있다면 좀 더 그런 쪽으로 선택하는 편입니다. 또 유기농 농산물을 들이려고 하는데요.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은 물론이고 그런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농부님들이 유기농으로 농사지은 거를 알 수 있다면 그런 농산물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로웨이스트랑 비건을 합친 '제비'의 삶

기후전문가 조천호 박사가 한 연구에서 기후위기 시대에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가성비 높은 실천법 두 가지로 '채식'과 '이동수단으로 자전거 이용하기'를 소개한 적이 있다. 송 대표는 이런 맥락에서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이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처음 비건에 관심을 가졌을 때는 동물권과 관련한 윤리적인 이유였는데, 엄마가 암 투병을 하게 되면서 채식이 사람의 건강과도 연결된다는 경험을 한 뒤부터는 좀 더 열심히 실천해 보려고 애쓰게 됐지요. 그런데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건이 큰 기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로웨이스트숍을 열면서 동시에 비건식품점을 함께하는 것이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맥락이 연결되었던 거 같아요."



물건의 전성분 표시들

송포어스 비건 식사

송포어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제로웨이스트숍과 함께 비건 식료품점을 운영하며 시중에서 엄선한 비건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비건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다. 또, 이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채소 껍질이나 뿌리, 씨앗 같은 생 쓰레기는 퇴비 항아리에 넣어 발효시켜서 퇴비로 만들고 있다. 항아리로 만든 콤포스트에 넣으면 산소를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음식쓰레기를 발효시켜주게 되는데, 자연에서 일어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발효되는 거라 냄새도 없고, 깨끗하게 퇴비를 만들 수 있다. 제로웨이스트와 비건의 앞글자를 따 만들어진 '제비의 삶'이란 생활용품에 이어서 먹는 활동에서도 지구의 위기를 인식하고 삶의 방식을 전환하고자 하는 송포어스의 지향과 실천을 이르는 말이 아닐까.

송포어스 활동

지구와 연결된 나, 나와 연결된 우리 '에코페르소나 워크숍'

송포어스에서는 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에코페르소나 워크숍'은 가장 인기 있는 행사였다. 자기 자신이 지구 또는 타인과 떨어져 홀로 살 수 있는 외딴 존재가 아니라는 지구와 이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워크숍이다.

"지구와 나와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서 뭔가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아가야지만 제대로 회복하고 어그러진 것들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간이 모든 생명을 지배하고 사람이 가장 우두머리에 있다는 관점이 싫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를 인간이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 인간의 위치는 그게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원래 지구생태계가 잘 돌아가려면 인간은 스스로, 지구의 다양한 생물종 가운데 하나라는, 그 전체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는 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간이 전체 생태계에서 우위를 전부 선점하고 있는 현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무게의 99.3%가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가축이다. 놀라운 사실은 1만 년 전만해도 지금과는 완전히 정반대였다는 점이다.

"그때는 인간과 인간이 먹는 가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1%도 안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바뀐 거지요. 그래서 여러 생물들이 급격하게 멸종하고 있어요. 멸종하는 동물이 아주 특수한 종인 것도 아니에요. 비둘기 같은 경우는 아주 흔히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한국 토종 비둘기는 100마리도 남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위기감 속에서 에코페르소나 워크숍은 지구와 연결된 나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더 큰 연결성 속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좀더 명확해지는 경험을 해보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Song Jung-hwa

원래 지구생태계가
잘 돌아가려면 인간은 스스로,
지구의 다양한 생물종 가운데 하나라는,
그 전체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있는
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잇템'들

송포어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주인장인 송 대표가 밀고 있는 '잇템'은 어떤 것일까.

"저는 팜유가 들어가지 않은 제품들을 추천합니다. 팜유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팜유 자체는 아무 죄가 없지만, 팜유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잘못된 게 많아요. 지금 아마존에서 열대우림을 불태우고 개간해서 대규모로 팜나무 농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마존은 소유권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 세계 글로벌기업들이 뛰어들어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마구잡이로 삼림을 훼손하고 있어요. 그 훼손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원래는 아마존이 지구의 허파였다면, 지금은 지구의 굴뚝이 되어버렸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전처럼 산소를 내뿜는 기능은 상실하고 오히려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런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팜유가 들어가지 않은 비누를 엄청 추천하고 있어요. '가치솝'이라는 브랜드에는 보통 비누에 들어가는 팜유 대신에 코코넛오일이나 대체오일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세탁비누는 거의 지우개 수준으로 때가 지워지더라고요. 원래 코코넛오일만 가지고 비누를 만들면 세정력이 굉장히 좋은 비누가 되거든요."

팜유가 들어가지 않은 비누들

그가 추천하는 두 번째 잇템은 면 월경대이다. 면 월경대는 기존 월경대가 호르몬의 교란을 일으키고 생식기나 몸 전체에도 해로운 성분이 많아서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 번 사면 기본 10년은 거뜬히 쓸 수 있는 아이템이니 지속가능한 월경생활을 돕는 물품이다.

마지막 잇템은 '야자변기솔'이다. 변기솔은 보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데, 야자변기솔은 솔 부분이 야자수로 되어 있고, 손잡이는 대나무로 되어 있다. 내구성과 항균성이 높아서 플라스틱보다 훨씬 오래, 깨끗하게 쓸 수 있을 뿐 아니라 쓰임이 다했을 때는 그대로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제품이다.

오래오래 버리지 않고 계속 쓸 수 있는 면 월경대

야자나무와 대나무로 만든 친환경 변기솔

쓰레기 문제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기록

송 대표는 쓰레기와 관련해 개개인이 주의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지표에 대해 '생활에 필수적인 어떤 물품이나 식품을 샀을 때 어느 정도의 비율로 포장 쓰레기가 발생하는지'와 '우리 집에 하루, 일주일 단위로 얼마만큼의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두 가지가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전자는 이미 생산과정에서부터 과포장, 과도한 플라스틱 소재 사용으로 개인의 노력으로 바꾸기 어려운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깨닫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이자 국민의 목소리를 기업과 정부에 전달해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해요. 후자로는 내가 배출하는 쓰레기의 성상과 총량을 파악해 이미 생산되어 발생하는 쓰레기를 제외하면 내가 줄일 수 있는 쓰레기를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내 집 앞에 쓰레기를 놔두면 누군가가 감쪽같이 해결해주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머지않아 이 쓰레기들이 더 이상 해결되지 않고 내 집 앞 혹은 집 안에 쌓이게 될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도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 파악할 수 있고, 더불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간 말고 쓰레기를 만드는 생명체는 없다

생필품에서 먹을거리까지 버릴 것 없는 날들을 실천하고 있는 송 대표에게 쓰레기는 어떤 의미일까.

"쓰레기에 대한 정의 자체를 새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간만이 쓰레기를 만들어낸다, 인간 말고는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생명체가 또 있을까? 저는 항상 이런 물음이 있거든요."

듣고 보니 그의 말이 꽤나 충격적이다. 과연, 인간 말고 다른 생명체들 중에 쓰레기를 만드는 존재가 있었던가.

"음식물쓰레기로 취급받는 과일껍질, 배추 꼬다리 이런 것들도 사실 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먹을 수 있는 데 자꾸 쓰레기라고 명명되는 게 이상하더라고요. 인간 관점에서만 이게 쓰레기일 뿐 채소 과일의 남은 부분은 모두 자연물이에요. 다만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만들고, 소비하고 함부로 버려서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 농산물은 껍질째 먹거나 뿌리나 꼬다리도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을 선택해 최대한 버리는 것을 줄이고, 물건의 경우는 10년이고 20년이고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일회용 또는 단기간으로 써야 한다면 흙으로 들어갔을 때 빨리 썩을 수 있는 것만 누리면서 살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지구를 위한 비건생활 워크숍 현장

생태, 공동체, 마을

송포어스는 2023년, 매장을 이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송포어스 매장 안에서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동네 일대를 자전거로 돌아보는 활동,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제로웨이스트 용품을 소개하는 팝업 매장 운영하고 강동환경영화제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프로젝트를 해왔다. 송 대표는 이제 조금 더 넓고 다채로운 물건과 프로그램으로 '송포어스2.0'을 도모하고 있다. "음, 저는 우주개발, IT개발 같은 이런 첨단기술이 아니라 지구와의 공존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도 최고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그려요. 기술문명이 발달할수록 그 가운데는 인간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기술, 인간을 도리어 소외시키는 기술 또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질학자들이 새로운 지질시대를 명명할 때는 어떤 생명체가 급격하게 멸종하거나, 그전에는 없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종이 생겨날 때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지금을 '인류세'라고 명명하고, 대표 물질을 플라스틱, 대표 생물을 닭이라고 말하고 있대요. 닭은 현재 지구상에 개체수가 가장 많은 생물종이라서 대표생물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생명들이 갑자기 멸종하고 인간은 또 갑자기 늘고…, 이렇게 변화가 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프라이부르크처럼 생태적이고 공동체 정신이 살아 있는 옛 촌락 같은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꿈꿔 봅니다."

송포어스가 해왔고 하게 될 일들에 관한 기록

강동기후위기비상행동에 참여한 송정화 대표

08

글로벌
재활용 혁신기업

테라사이클

2022 ARCHIVING BOOK

TerraCycle

쓰레기를 자원으로 만드는 연금술 테라사이클의 혁신 이야기

글로벌 재활용 혁신기업 테라사이클

테라사이클(TERRACYCLE)은 '쓰레기라는 개념을 없애자(Eliminate the idea of waste)'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재활용 해법을 제시하는 글로벌 재활용 혁신 기업이다. 테라사이클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조수홍 씨, 고혜림 씨와 쓰레기를 자원으로 순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쓰레기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세상에 대한 꿈을 이야기했다.

라사이클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조수홍 씨(좌)와 고혜림 씨

쓰레기 재활용 플랫폼과 재사용, 물질재활용

Q: 테라사이클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A: 테라사이클은 지렁이 배설물 비료에서 출발했습니다. 2001년 창업자인 톰 쟈키(Tom Szaky)가 미국 프린스턴 대학 학생일 때 구내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아 지렁이에게 주고 배설물로 거름을 만들었거든요. 이후 소각 혹은 매립되던 담배꽁초, 기저귀, 콘택트렌즈, 해양 플라스틱 등으로 재활용 쓰레기 범위부터 재활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나라를 꾸준히 늘렸고, 2019년에는 이 경험을 고스란히 프로세스화해 버려지는 병이나 용기 등을 재사용하는 '루프(LOOP)'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라사이클은 2017년 설립된 한국 법인을 포함해 21개 나라에 진출해 쓰레기 속에서 다시 쓸 수 있는 물질들을 분리해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물질재활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Q: 테라사이클이 하는 일을 크게 쓰레기 재활용 플랫폼과 재사용, 물질재활용으로 나누어 설명해 주셨는데요, LOOP는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재활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A: 다양한 재질로 만들어지는 탓에 재활용이 어려워 문제가 되는 화장품 용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화장품 용기 하나에는 제품의 변질을 막기 위해, 위생적인 사용을 위해, 그리고 상품이 보다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이나 금속이 사용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다 쓴 용기를 기존 방식으로 분리배출 했을 때에는 재활용 하기가 어려워요. 테라사이클은 뚜껑, 라벨, 스포이드, 튜브, 스프링, 속용기, 겉용기 등을 직접 손으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세척을 해서 남아있는 화장품 잔여물을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 뒤 용기를 분쇄하고, 조각난 화장품 용기는 염수 비중 분리를 통해 재질별로 선별합니다. 이런 조각을 분쇄품(플레이크)이라고 하는데, 이 분쇄품을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 원료로 쓰고, 다른 제품 생산에 사용하면서 자원이 순환되게 됩니다.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핵심 전략은 '참여'

Q: 테라사이클이 품고 있는 중요한 문제의식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정한 방향과 전략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테라사이클은 제조-유통-소비-폐기(매립 또는 소각)으로 이어지는 선형경제가 제조-유통-소비-자원순환(재사용, 재활용)으로 선순환 사이클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이 과정은 테라사이클 혼자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지속가능할 것입니다. 때문에 테라사이클은 재활용 프로세스에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수거 단계에서부터 소비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요거트를 먹고 난 통을 재활용해 만든 화분과 모종삽

가장 중요한 전략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사람들을 참여하게 만들고,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주변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캠페인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함께 모은 자원들이 이런 결과로 나왔다'라는 부분을 투명하게 공유해요. 수거한 공병이 원료화되어 다시 제품 생산을 위한 자원으로 쓰이게 되거나, 또는 건축자재로 새롭게 태어나 생애주기를 늘리는 등 우리 일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아이템이 되어 '내가 참여하여 이런 변화를 이끌어 줄 수 있다'라는 경험을 직접 느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테라사이클이 그동안 해온 일의 흐름과 그 일을 하는 방식, 관련한 주요 파트너들을 소개해 주세요.

A: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자원순환을 경험하게 하고, 나아가 그들이 다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협업은, 처음으로 테라사이클 한국팀과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 화장품 용기 수거 및 재활용 캠페인을 시작한 아모레퍼시픽, 이마트를 포함한 12개 기업과 기관이 함께하는 '가플지우 캠페인', 한국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원더플(One The PL) 캠페인' 등입니다. 또한, 해양환경공단과는 매년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 글로벌 파트너인 로레알 코리아, 록시땅 등과도 국내 자원순환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린사이클, 가플지우, 원더플…
기업들과의 환경 캠페인

Q: 지금까지 테라사이클이 해 온 활동 가운데 가장 힘주었던 것, 신나게 했던 것, 성과가 컸던 사례를 꼽아주신다면?

A: 물론 테라사이클이 진행한 모든 활동에 의미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꼽자면 아모레퍼시픽과 함께하는 '그린사이클 캠페인'이에요. 그린사이클 캠페인은 소비자들이 다 사용하고 남은 플라스틱이나 유리로 만들어진 화장품 용기나 공병을 가까운 아모레퍼시픽 브랜드 매장으로 가져다주면 뷰티포인트를 적립해 드리는 캠페인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테라사이클 한국지사가 생기기도 전인 2003년부터 그린사이클 캠페인을 통해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용기를 수거하고 있었는데요. 테라사이클 코리아가 설립된 2018년부터는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고 연간 100톤 규모의 플라스틱 용기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된 자원을 다시 화장품 용기 제작에 투입하거나, 매장 내 집기 등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꾸준함에서 나오는 진정성은 그 어떤 캠페인보다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

Q: 테라사이클이 최근에 하고 있는 활동들도 궁금합니다.

A: 2022년에는 이마트 및 12개 협업사와 '가플지우 캠페인'을 진행했고, 한국 코카-콜라와는 '원더플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가플지우 캠페인은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가요 우리 바다'라는 뜻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한 환경캠페인입니다. 전 세계 해양 쓰레기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이 해양 플라스틱인데요, 대부분이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들어간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쓰는 플라스틱을 버리지 말고 모아 달라는 취지의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2018년 이마트 성수점을 비롯해 수도권 매장에서 운영된 플라스틱 회수 캠페인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마트, 한국피앤지, 해양환경공단, 자원순환사회연대, 포스코, 씨제이제일제당, 에스에스지닷컴, 지마켓, 유익컴퍼니 등 13개의 유통 및 제조사, 환경기업 및 기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원더플 캠페인은 한국 코카-콜라를 비롯해 여러 음료

기업들과 함께하는 캠페인이에요.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One The Plastic)'과 '멋진, 경이로운'이라는 뜻을 지닌 영어 단어 '원더풀(wonderful)'을 모두 품은 이름입니다. 음료 페트병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벌인 캠페인으로, 2020년에 시작해 2022년 시즌3까지 진행했습니다. 시즌3은 개인들이 참가 신청하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고, 제로웨이스트 박스를 보내드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참여자가 그 제로웨이스트 박스에다 투명 음료 페트병을 가득 채워 다시 보내주시면,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접이식 보랭 캠핑의자를 선물했고요. 이렇게 자원순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시즌3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소비자 3,791명이 직접 참여해서 22.5톤의 폐페트병을 모았습니다.

또, 지난 2020년 12월부터는 해피문데이라는 유기농 월경용품회사와 우리나라 최초로 월경컵을 순환시키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월경컵을 모아주면 세척하고 분쇄해서 러닝 트랙이나 그밖에 다른 용도로 재활용해요. 3개 도시 제로웨이스트숍에서 월경컵을 수거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지구샵과 제로띵스, 천연제작소, 부산점, 양산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플라스틱뿐 아니라 실리콘 재질의 재활용에 도전한다는 측면에서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히 기대하는 사업이에요.

모든 사회적 문제가 그렇겠지만 특히 환경 문제는 특정한 누군가가 혼자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환경 문제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테라사이클에서 수행하는 캠페인들은 소비자에게 직접 경험을 제공하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을 드리는데 집중하고 있어요. 참여자와 기업이 제조-유통-소비-자원순환까지의 전 과정을 함께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큽니다.

가플지우 캠페인

원더플 캠페인

테라사이클 직원들의 점심시간 플로깅 '홀리워터데이'

Q: 테라사이클이 서울이라는 거대도시, 그 대도시에 모여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펼쳐온 일들이 있다면 구체 사례로 듣고 싶습니다.

A: 서울은 언제나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재밌는 일과 이야기를 만드는 도시입니다. 테라사이클 코리아 초기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했어요. 특히 서울은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도시라는 부분에 기반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생활용품 플라스틱 포장용기(페브리즈 같은 복합재질의 분무기통) 수거를 위해 아파트 단지에 수거함을 설치했어요. 이렇게 오프라인, 그리고 서울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활동을 이어 오다가 지난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테라사이클의 캠페인 방식은 대전환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중심의 활동을 온라인으로 중심으로 바꾼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배달음식 이용이 급증했는데요. 한국 코카-콜라와 함께 이런 가정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배달음식 용기와 투병 음료 페트병을 택배로 수거하는 원더플 캠페인 시즌1이 이때 시작되었어요.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저희가 제로웨이스트 박스를 보내드리면, 시민들은 가정에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담아서 저희에게 보내주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거지요. 이를 계기로 온라인 캠페인 참여 비중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로 진행되는 온라인 프로그램은 서울-경기-부산 순으로 높은 참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Q: 테라사이클 구성원들이 환경과 관련해 하고 있는 특별한 활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A: 서울 강동구 성수동으로 사무실을 옮기면서 팀원들끼리 할 수 있는 활동을 고민하다가 문득 하수구에 쌓여 있는 담배꽁초에 주목하게 됐어요. 흡연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무실이 많은 성수에는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나 일회용 컵을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점심시간을 이용해 테라사이클 식구들이 거리의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홀리워터데이'라고 해요. 사무실이 자리한 '성수'동은 원래 한자로 성덕정(聖德亭)의 '성(聖)'과 뚝도수원지의 '수(水)'를 합쳐 새로 만든 지명입니다. 홀리워터데이는 '성스러운 물'이라는 한자 그대로의 의미와, 담배꽁초가 하수구를 통해 바다로 흘러가지 않도록 막고, 깨끗한 물을 지키자는 중의적인 의미를 담아 '홀리워터데이'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점심 먹으러 나선 김에 30분 정도만 더 할애해 다니는 길목을 청소하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하수구를 막고 있는 쓰레기들을 줍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큰 비로 침수 피해가 속출했잖아요. 비가 많이 오면

홀리워터데이

쓰레기 때문에 배수구가 막혀 침수 피해가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하수구 깊숙한 곳에 버려진 꽁초를 주울 때는 긴 집게를 쓰는데, 이것도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거랍니다. 지금은 저희 내부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홀리워터데이는 누구든, 어디서든 자기 활동 근거지에서 해볼 수 있는 일이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쓰레기는 새로운 가치이자 자원의 또 다른 시작

Q: 쓰레기를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애쓰는 활동을 해온 테라사이클에게 '쓰레기'란 어떤 의미인지요?

A: 쓰레기는 버려지고 끝나는 존재가 아닌 '새로운 가치'이자 '또 다른 시작'입니다. 쓰레기는 또 다른 자원인 거지요. 모든 것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테라사이클의 대전제입니다. 테라사이클은 언젠가는 모든 것이 재자원화되어 쓰레기라는 개념이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 테라사이클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구 환경은 덜 손상되고, 사람들은 덜 손상된 지구가 주는 혜택을 누리게 되겠네요. 테라사이클이 오롯이 만들고 싶은 삶의 방식은 어떤 모습인지요?

A: 뭔가를 새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고, 더는 천연자원을 축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그려지는데요.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재활용이 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그래서 테라사이클이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활용률, 수거량 등을 정확히 집계해 시민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

Q: 쓰레기와 관련해 서울이나 한국에서 가장 주의깊게 들여다보아야 할 지표는 무엇이고, 왜 주목해야 하는지요?

A: 재활용률입니다. 뉴스를 보면 어떤 매체에서는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이 30% 안팎이라고 추정하고, 어떤 기사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69%로 추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물질재활용되는 폐플라스틱의 정확한 수치가 집계되지 않고 있는 거죠. 시민들은 재활용 마크(분리배출 마크)를 보고 재활용을 기대하며 분리배출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스템 상 실제 재활용되는 양이 얼마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재질이 복잡해 재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시민들이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만큼 이것들이 다시 자원화된다는 믿음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테라사이클의 활동 및 사업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요? 주요 기록물들을 소개해 주신다면?

A: 수거량에 대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수거되는 폐자원의 양은 곧 우리나라 시민들이 자원순환이라는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테라사이클 코리아 수거량은 2018년과 비교해 매년 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테라사이클 코리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자이기에 홈페이지 회원 수, 인스타그램(한국에서는 인스타그램 채널에서의 소통을 선택하여 집중하고 있음) 같은 소셜미디어 채널의 팔로워 수, 카카오채널 회원 수를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에 공감하고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반증이니까요.

Q: 그 기록물들을 활용하고 가공하고 유통하는 방식이나 플랫폼, 유형도 소개해 주세요.

A: SNS 이외에 자체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소셜미디어와 더불어 이곳에서 콘텐츠 아카이빙이 이뤄질 예정이고, 기존 유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후 테라사이클 포인트(웹상 재화) 시스템과, 제로웨이스트 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저들이 테라사이클의 자원순환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프로젝트별, 시기별로 실시간 공유되는 테라사이클의 기록

Q: 테라사이클은 한국뿐 아니라 글로벌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업무도구들은 어떤 것들을 쓰고 있는지요?

A: 구글 툴을 가장 많이 씁니다. 구글 툴은 상시 함께 작업하고, 공유가 용이하며, 즉각 화상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 테라사이클은 유연하고 개방적인 업무방식을 취하고 있어 원격협업, 의사소통방식, 의사결정방식, 대외소통, 파트너 관리 등의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들(메신저 대화내용, 주고받은 첨부파일들, 보도자료, 이메일 등)의 관리 방식이 남다를 거 같습니다. 업무과정에서 생산되거나 수집된 기록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A: 테라사이클의 모든 기록은 '실시간 공유' '프로젝트별-연도별/월별 기록 방식' 두 가지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고 같은 캠페인이라도 나라마다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을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해 테라사이클러라면 누구든 자유롭게 실시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수거 품목에 따라 프로젝트 관리자는 주간 변동사항을 기록하고, 이 또한 누구든 열람할 수 있고요. '혁신'을 만드는 기업인만큼 의사소통 과정 또한 굉장히 긴밀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집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고, 회의 시간이 짧게는 15분, 길어도 1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매일 전 세계에서 테라사이클이 진행하는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뉴스를 실시간으로 받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톰 대표님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는데요, 사전에 자유롭게 질문을 익명으로 제출해요. 미팅은 누구든 실시간으로 질문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이고요.

기록은 탐구하는 테라사이클의 노력이자 자부심

Q: 테라사이클에게 기록, 아카이빙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들려주세요.

A: 테라사이클에게 기록이란 첫째, 우리를 탐구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참여 데이터, 수거량에 대한 데이터들이 쌓이고, 이렇게 쌓인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수 있으니까요.
둘째, 기록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모든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되고, 계획했던 일들이 어그러졌을 때 재빨리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추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캠페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셨지만 정말로 참여자들이 수거와 재활용이라는 캠페인 여정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실지는 미지수였어요. 그 우려는 첫 번째 박스가 입고되었을 때 사라졌어요. 당시의 기쁨과 놀라움이 지금도 생생해요. 첫 도전이 성과로 이어지고 매일매일의 성과가 기록으로 남는 과정에서 우리는 지난 도전의 어려움, 성공했다는 기쁨을 공유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테라사이클 직원들

09

플라스틱 만다라,
산호뜨개 작품 선보인
생태예술가

정은혜

작가

2022 ACHIVING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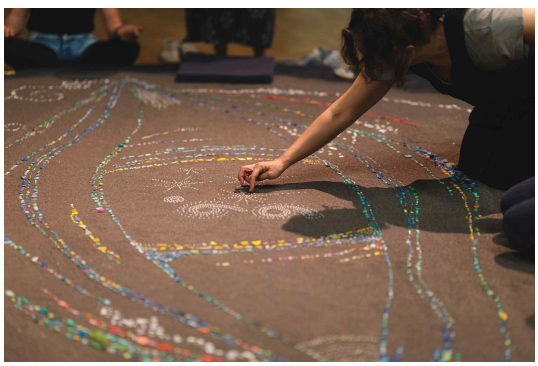
Jung Eun-hye

플라스틱 쓰레기로 탄생한 만다라, 애도와 축복을 보내다

생태예술가
정은혜 작가

"저는 사실 쓰레기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고통이지요.
우리가 만드는 고통.
우리가 바다에 내버리는 고통.
필요 없이 밀려난 것들이 만든 고통 말이에요."

미술치료사이자 생태예술가인 정은혜 작가는 제주 바다에서 플라스틱 조각들을 줍는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바다에 내버리는 고통을 기어이 다시 주워 담는 것이다. 그 줍는 행위는 사뭇 신성하다. 망망대해를 바라보고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몸을 숙인다. 그래야만 그, 너무 작아서 잘 눈에 띄지 않는 플라스틱 조각을 찾아낼 수 있다. 주워 모은 작은 플라스틱을 좀 더 큰 플라스틱 통에, 두르고 간 머플러에, 치마폭에, 바구니에 담는다. 그렇게 모인 플라스틱을 가지고 사람들과 만다라를 만든다. 작가 정은혜는 쓰레기가 파도처럼 밀려드는 바닷가에 엎드려 애도와 축복을 전한다.



플라스틱 만다라 작품 활동 모습

조류를 타고 돌고돌아 제주 앞바다에 다다른 플라스틱

Q: 플라스틱 만다라의 탄생이 궁금합니다.

A: 제주 바다에서 개구리알처럼 생긴 플라스틱 알갱이를 주웠어요. 찾아보니 너들(nurdle)이라는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더라고요. 이게 왜 바다에서 나오는 걸까 싶었는데, 저 멀리 태평양에서 플라스틱 원료를 실은 선박이 침몰하거나, 플라스틱을 적재한 기차가 넘어지면서 미시시피강에 빠지거나 하면 쏟아진 플라스틱 너들이 조류를 타고 돌고돌아 제주 앞바다까지 오는 거예요. 바다에 쓰레기는 늘 있었는데, 너들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허리를 숙여 계속 줍기 시작했어요. 이 플라스틱들이 제주까지 오게 된 맥락을 알게 된 게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한편으로 저는 미술치료사로서 사람들과 함께 자연에서 주운 재료로 바닷가에 모여 거대한 만다라를 만드는 작업(해변에 그린 만다라 문양)을 5년째 해왔었어요.

정은혜 작가는 너들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허리를 숙여 줍기 시작했다.

그렇게 제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작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고, 2019년에는 제주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는 '2019국제생태미술전'에 플라스틱 만다라 첫 전시를 열게 되었지요. 첫 전시 때 만든 만다라는 아무런 패턴이 없었어요. 그냥 원형을 만든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임팩트가 있었던 거 같아요.

만다라 만드는 작업 말고도 관객이 참여하는 '바다에 대한 사과문 쓰기' 행사도 했어요. 이게 처음에는 한 50장 정도 샘플프로젝트로 진행한 건데, 사람들이 정말 절절하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참여가 늘어나서 지금은 500장이 넘었어요. 언젠가 이것도 콘텐츠로 묶어 봐야겠다 싶어요.

만다라를 만들며 빌고 기원했던 축복의 메시지가 지구의 모든 살아 있는 존재들에게 닿기를

Q: 플라스틱 만다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들려주세요.

A: '만다라'는 불교에서 자연의 순환, 조화를 나타내는 원형 이미지를 뜻하는데요. 티베트 스님들은 며칠 밤, 몇 주에 걸쳐 색깔 모래로 만다라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다라를 만들어 완성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완성되자마자 그 색색의 모래를 한꺼번에 쓸어 모아서는 모래가 왔던 강이나 바다로 다시 흘려보냅니다. 만다라를 만들며 빌고 기원했던 축복의 메시지가 지구의 모든 살아 있는 존재들에게 닿기를 바라면서요.

플라스틱 만다라도 그런 맥락과 연결되어 있어요. 기어다니면서 모래사장 속에 숨어 있는 미세할 정도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하나하나 줍고 모으고 분류해서 만다라 문양으로 배치하고, 완성되면 그걸 해체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Jung Eun-hye

플라스틱 만다라

온 지구에서 버려져 흘러다니는
죽음의 플라스틱을
우리는 제주도 바닷가에서 거둬들인다.
모래밭을 기어다니며 모래를 한 겹 한 겹 헤쳐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하나하나 줍는다.
그 행위는 자연 앞에 낮게 엎드리는 일이며,
나 자신과 바다의 직접적인 연결을
아프게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모은 플라스틱 조각으로
모래 위에 만다라를 그리며
바다와 바다 생명에게 보내는 애도와
세상에 보내는 축복이 어우러진다.

-<PLASTIC MANDALA> 전시 도록, 반석탕, 2020

한 줌만큼의 애도,
한 줌만큼의 축복

Q: 플라스틱 만다라 작업에 늘 함께하는 애도와 축복은 어떤 의미일까요?

A: 오늘 우리가 쓰레기라는 화두로 만났는데요, 제 작업이 지구를 살린다거나 쓰레기를 없애는 행위는 아닌 거 같아요. 플라스틱 만다라는 아주아주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모아서 하는 작업이에요. 한 번에 한 줌 정도밖에 못 주워요. 이 광활한 바다에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 한 줌의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을 손에 잡고 있으면 가슴이 아파요. 고작 이만큼으로요. 그래서 '한 줌만큼의 애도, 한 줌만큼의 축복'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해요. 고작 이만큼을 거두어 내는 것이 작은 축복의 행위이고 애도의 행위라는 의미이죠. 지구를 살리기에는 정말 미미한 양이에요. 아무리 주워도 다 거두지 못한다는 것이 이 작업에 깔린 철학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고통은 어쩌면 우리를 연결하지 않을까, 고통은 연민을 일으키고 연민은 행동하게 하니까 이 작업은 고통을 경험하는 작업인데, 솔직히 거기까지는 잘 되지 않아 고민이 많아요.

Q: 그래도 플라스틱에 대한 경각심을 부르고, 새로운 '쓸모'라는 희망이지 않을까요?

A: 플라스틱은 색도 쨍쨍하고 알록달록하고 예뻐요. 사람들이 열망하는 대상이 되는 거지요. 플라스틱을 많이 쓰는 이유가 편리하고 싸다는 이유도 있지만, 미적으로도 사람들이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걸 힘들게 모아 만다라를 만들어 놓고는 곧바로 해체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깜짝 놀라요. 그런데 이 작업의 핵심은 바다에 쓰레기가 많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이 반짝이는 걸 좋아하는 욕망이 바다를 죽음으로 몰고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의 전시

그래서 이건 업사이클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업사이클은 인간의 마음으로 보면 오히려 죄책감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았는데, 이걸로 용도가 있고 쓸모가 있는 걸로 만듦으로써 마치 쓰레기를 없앤 것 같이 느끼게 하는 거죠. 저는 이 작품으로 플라스틱 조각들은 쓰레기이고, 효용이나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고,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요. 처음과 시작이 똑같은 작업이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괴로워요. 이번 여름에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전시를 했어요. 매번 만다라를 만든 뒤에 해체하는데, 그때 남은 조각으로 작은 목걸이를 만들어서 나눠 가져요. 그런데 다들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갖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또 실패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만다라를 해체할 때 사람들이 백화점 마감 세일에 달라붙는 느낌으로 그 목걸이를 욕망하고 있더라고요. 예쁜 것까지는 너무 잘 전달이 되는데, 슬픈 건 잘 전달이 안 되었구나 싶어서 안타까웠어요. 제가 플라스틱 만다라 작업을 지금까지 4년이 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지점에서 한계를 많이 느껴요.

예쁜데 괴롭고,
미안한데 축복이고…
플라스틱 쓰레기로 고통을 경험하는 법

Q: 은혜 작가는 플라스틱이 사실 쓰레기이고, 그것이 자연에 해롭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군요?

A: 작품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싶기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전하고 싶은 메시지

가 하나는 아니에요. 예쁜데 괴롭고, 미안한데 축복이고. 그런 복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치료사로서도 늘 말하고 있는 메시지이긴 해요. 치료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경험하게 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느끼고, 받아들이고, 나의 모순을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고통을 느끼고, 고통을 통과하는 거지요.

우리는 보통 이런 엄혹한 현실이 있으면 피하고 싶고, 괴로우니까 무시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 고통을 느끼자는 거예요. 고통을 경험하면 통과할 수 있게 돼요. 고통을 지니고 살 수 있게 돼요. 플라스틱 만다라 작업에서 고통을 통과할 수는 없어요.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그걸 지니고 살고, 또 그렇다고 절망하지도 말고 그러자는 겁니다. 예술의 힘인 것 같기도 해요. 치료라는 행위의 과정도 그런데, 빛과 그림자를 다 포용하는 것이지 빛은 취하고 그림자는 버리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해변에 그린 만다라 문양

저는 이 작품으로
플라스틱 조각들은 쓰레기이고,
효용이나 교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고,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요.
처음과 시작이 똑같은 작업이 되는 게
핵심이에요.

무해할 수 없는 나를 데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Q: 그럼에도 이 작업을 이어가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금은 덜 해로운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함인가요?

A: 요즘 이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우리가 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또 무해하려고 애쓰는 마음도 옳지 않고요. 내가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을 악의 자리에 놓고 자신이 선이라는 판단을 해야 하거든요. 이게 사실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무해할 수 없는 나를 데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채식을 오래 한 저는 비거니즘을 생태작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 봐요. 그렇다고 '채식을 하지 않는 너는 세상을 학대하는 존재야' 라고 할 수 없거든요. 말하는 순간 적대적인 관계가 되고, 죄의식을 갖게 만드니까요. 사실 플라스틱 만다라 작업과 관련한 이야기를 모두 하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기도 하고, 이야기하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한 번의 전시로는 잘 안 나타나기도 하고요.

Q: 요즘은 젊은 세대들에게 지구적인 감각, 기후위기에 대한 예민함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A: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아졌어요. 한편으로는 미안함에 대한 예민함이 아니라 미안함에 대한 강함을 키워야 될 거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미안함을 줄이자는 건 아니고, 미안함을 감당하자는 거예요. 힘인 거죠. 부드러운 것과 강한 것의 공존, 지구가 아파하는 것에 공감하되 절망하지 않기! '기후우울증' 등이 필요한 이야기이긴 해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을 연약하다고 보기 쉬운데, 실은 그게 엄청 강력한 거거든요. 나를 연약한 곳에 놓는 거지만, 연민이라는 것이 나를 보호하기도 해요. 문제를

해결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걸 더 다뤄야 할 거 같아요. 갈등이나 트라우마의 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가지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제주 바닷속에서 아름다운 산호를 만나다

Q: 산호뜨개 작업도 정말 아름다워요.

A: 제가 뜨개질을 참 좋아해요. 서울에서 뜨개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그때 한 것이 '목표가 없는 뜨개질'이었어요. 그걸로 금천예술공장에서 전시도 했죠. 사실 산호뜨개는 북미나 영국, 호주 이런 데서 하는 풀뿌리 뜨개운동과 연결돼 있어요.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산호뜨개 전시를 봤는데, 제가 본 가장 아름다운 전시 중 하나였어요. 진짜 산호랑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러다 제주에 왔더니 녹색연합에서 산호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해외에서 산호 전문가들이 와서 강정에 생긴 해군기지가 산호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태조사를 하러 온다는 거예요. 거기 통역 자원봉사가 필요하다고 해 손을 들었죠. 막상 통역을 하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닷속 이야기를 하는 데다 산호니, 해양생태계니 하는 전문용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통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돼 다이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닷속에서 마주한 산호 앞에서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있을 수 있지 했어요. 제주살이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살짝 지루함을 느끼던 차에 제가 모르는 아주 황홀한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바다에 조금만 들어가면 바로 그런 풍경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산호가 죽어가고,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산호뜨개를 보고 느낀 감동, 제가 자유로운 뜨개질을 하는 사람이었던 것, 사람들과 커뮤니티아트를 해온 경험을 아울러 산호뜨개 워크숍을 하게 되었습니다.

Q: 산호뜨개 워크숍이라는 방식도 독특해요.

A: 코로나 전까지 산호뜨개 워크숍을 한 100회 정도 했어요. 근데 이게 한국에선 잘 안 맞아요. 목표가 없고, 용도가 없고, 쓸모가 없어요. 정해진 기법이나 도안이 없거든요. 코바늘로 뜨는데 뜨개 기술도 필요없고, 이걸 한다고 실력이 느는 것도 아니고, 처음도 없고 끝이 정해져 있지도 않아요. 또 자기가 떴는데, 가져갈 수도 없어요. 전시를 하면 내 것이 어디 있는지, 몇 개인지도 몰라요. 각자 만든 걸 다 합쳐 전시를 하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한국적 정서와는 좀 거리가 있죠.

산호뜨개

이것도 원래는 해체하는 게 작업의 끝인데, 뜨개질 작업은 실을 해체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웃음) 그리고 풀 때 나오는 미세플라스틱이 건강에 안 좋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 전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해체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자연감각을 회복시키는 조율워크숍

Q: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업뿐 아니라 자연의 일부가 되는 활동도 하고 계시죠?

A: 저는 이걸 '조율'이라고 표현해요. 조율워크숍은 예술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 워크숍이에요. 나무뿌리 속에, 땅속에, 수풀 속에 들어가서 그 일부가 되어 보는 워크숍인데, 죽을 때까지 그 경험을 갖고 살 거 같아요. 사람들이 벌레를 이렇게까지 혐오하고 공포스러워하는지 몰랐어요.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도시에 사니까 벌레를 제대로 만날 일이 그동안 없잖아요. 숲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는데 숲에 그냥 앉지도 못해, 나무를 끌어안아 본 적도 없대요. 해보고 나면 너무 감동적이었다며 울기도 하는데, 그걸 여태 못 해보고 살았던 거죠.

저는 원래 벌레가 무섭지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 지네한테 물렸을 때는 겪어보지 못한 통증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지네에 대한 공포가 심하게 올라왔어요. 그걸 잘 다루려면 나부터 조율해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지네 사진을 띄워놓고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초상화를 그리려면 외면하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일종의 '공포치료'처럼 뱀이나 엘리베이터 등의 공포와 직면하는 계기를 가지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죽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죽지 않는다는 경험을 해내야 그 공포에서 극복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에 가지는 두려움을 없애고, 우리 몸의 자연감각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해 왔어요. 바다에서 쓰레기를 줍다 보면 사람들이 정말 바다를 사랑하는 건가 의심하게 돼요. 그냥 예쁜 바다만 취하는 것 같거든요. 조율워크숍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 다룰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지에서 나오는 위해들을, 그런 걸 가하는 행위자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대면하고 해결하는 작업입니다.

한쪽에서는 지구가 망하니까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통제하려는 경향도 강해지는 것 같아요. 자연을 만나는 것이 결코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자꾸 편한 방식으로

조율워크숍

만 경험하려고 하는데, 조율워크숍으로 그런 문제를 말하고 싶었어요.

Q: 다음 작업은 어떤 걸 계획하고 있어요?

A: 2023년에는 플라스틱 만다라를 다른 나라 해안가와 연결해서 해보려고 해요. 만다라는 완벽한 이상향의 문양이에요. 불교에서 나온 말이라 불교적인 작업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종교 이전부터 있었던 고대의 문양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런 이상향을 늘 꿈꾸어왔고, 그 이상향과 닮은 완벽한 조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 만다라 문양이에요. 그런데 플라스틱이 이 조화를 깨트렸고, 조화를 상징하는 문양과 그 조화를 깨뜨리는 '예쁜' 플라스틱이 애매모호한 경계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한국에서는 왜 미술치료가 먹히지 않을까

Q: 정은혜의 정체성을 하나로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A: 청소년기에 캐나다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미술을 전공하고 미국 시카고 미대에 진학해 스튜디오미술치료를 배웠어요. 제가 공부한 건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창조의 힘을 활용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행위가 갖고 있는 치유적인 힘에 대해서 배운 거죠. 예술 본연의 힘, 그 힘을 다루고 나누는 법을 습득한 거예요.

졸업 후 미술치료사로 일했어요. 미국에서 미술치료사가 되려면 1,000시간 정도 실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정신병원이나 청소년치료센터 등에서 일했는데 정말 '하드코어한' 상황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일해보니 진짜 미술이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예술이 진짜 마음을 움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돌보고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는 확고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고는 한국에 돌아온 거죠.

한국에 왔더니 이 확고한 믿음이 어이없이 흔들렸어요. 진짜 자신감 만땅이었거든요. 굉장히 험한 곳에서 일한 터라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한국에서 미술워크숍을 하는데 '자, 여러분. 이제 표현해 보세요' 하면 '뭘 하라고요?' 하고 어리둥절해하고, '자기 마음을 한 번 들여다보세요' 하면 '뭘로요?' 하고 물어요. 워크숍 하다가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나오셔서 막 울기도 했어요. '제발 뭘 하라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칠판에 써주세요' 하면서요. 한국에서 미술치료 하면서 정말 많이 깨갱했어요. 제 공부와 실습이 '먹히질' 않으니까요.

그러고는 제주에 왔고,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가 배운 미술치료와 커뮤니티아트를 결합하는 작품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정신병원과 청소년치료센터에서 일한 걸 바탕으로 《치유적이고 창조적인 순간》이라는 책도 펴냈고요. 7년 전부터 준비한 책인데, 2015년 제주에 왔을 즈음에야 나왔지 뭐예요.

조율워크숍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
다룰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무지에서 나오는 위해들을,
그런 걸 가하는 행위자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대면하고
해결하는 작업입니다.

Jung Eun-hye

정은혜 작가가 펴낸 책과 전시 도록들

Q: 《치유적이고 창조적인 순간》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어요?

A: 정신병원에서 만난 사람들, 정말 미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과의 시간이 일깨운 예술이 움직이는 힘, 우리 본연의 창조성, 사람들이 정말 힘들 때, 정말 기쁠 때 갑자기 나오는 창조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 순간들을 담았어요. 그 순간이 바로 치유의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Q: 그림일기 쓰는 법에 대한 책인 《나에게 잘하자》를 비롯해 흥미로운 책들이 많아요.

A: 《나에게 잘하자》는 그림일기 쓰는 법에 대한 책이라 실제로 그림일기를 쓰는 연습장이랑 두 권을 세트로 묶어 펴냈어요. 이 책은 왜 썼냐면요, 여기 보면 별사람 그리기라는 기법이 나오는데, 이게 간단하게 사람을 그리는 기술이에요. '나는 그림을 못 그려요'라는 말을 듣는 게 지긋지긋해 개발한 거예요. 미술워크숍을 하면서 그 말을 한 천 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노라 작정하고 개발한 기법이에요.

정말 이 기법이 놀라운 게 한 30분 배우면 모두가 그려요. 아이들이 그림을 배울 때와 같은 과정이에요. 대개 나이 들어서 하면 글씨를 쓰듯이 좌우, 위아래부터 그려요. 근데 이 기법은 중간에서부터 그려요. 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그림을 못 그린다고 하는 게 문제풀이, 풀고 싶은 숙제였어요. 어떻게 풀까 하다가 책 한 권이 나오게 된 거죠.

그림으로 뇌리에 새기는 기억 그리고 압축된 정보

Q: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에서는 의아한 느낌도 받았어요.

A: 좀 뜬금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싸움을 이기는 기술'인 줄 알고 책을 집었다가 잘못 읽었다는 사람도 꽤 많았죠.(웃음) 《싸움의 기술》은 관계의 갈등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권하는 책이에요. 사랑해도 싸울 수 있고, 미우면 미워서 싸움이 되고, 그렇게 사나운 일들이 늘 생기잖아요. 특히 소중하고 애착이 큰 사람과 관계가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컸고, 동시에 이 고민이 나한테만 생기는 건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책까지 나왔네요.

Q: 제주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A: 캐나다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그때 대자연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자연에, 시골에 깃들어 살리라 했어요. 제주에 마침 예술가 레지던시도 있고 해서 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서울에 사는 게 좀 힘들었거든요. 돈도 없고, 소음에도 민감하고.

치료실이라는 실내보다 자연에서 사람들이 훨씬 더 치유의 힘을 빨리 되찾거든요. 사람이 실내에 있으면 에너지가 안으로 쏠리고 깊어져요. 그런데 자연으로 나가면 우리의 감각도 밖으로 나가는데 이게 치료할 때도 참 좋거든요. 저도 자연에 있을 때 가장 편하고요.

치료하는 것, 문화예술 교육을 하는 것, 그냥 자연에 가서 노는 것, 이런 게 프로그램이 되고, 치료가 되고 교육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제안을 받아 생태문화예술교육 연구에 3년간 참여하기도 했고요. 원래 바다 수영을 좋아해 놀다가 모래사장에서 플라스틱을 줍게 되었어요. 그게 플라스틱 만다라로 이어졌고요. 이 모든 게 제주라서 가능한 작업이지요.

완성된 플라스틱 만다라를 해체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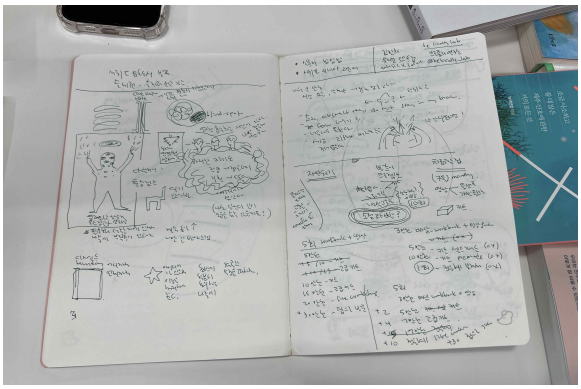
Q: 정말 대장정이네요.(웃음) 은혜 작가의 작업에 영감을 준 중요한 기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A: 《자연의 노래를 들어라(The Great Animal Orchestra, 버니 크라우스)》라는 책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도 가장 큰 경험은 자연 자체인 거 같아요. 거대한 호수 가운데서 캠핑하면서 본 수천수만 개의 별, 눈이 쏟아지는 고요한 밤이면 들리는 지구의 고요한 소리 같은 거예요. 외롭고 우울한 청소년기와 20대를 보냈지만 자연 속에서는 안 외롭더라구요. 내가 숲인 거 같고. 그러면 괜찮아졌어요.

Q: 작업할 때 기록을 많이 하나요? 어떤 기록을 남기고 활용하는지 궁금합니다.

A: 메모를 엄청 많이 해요. 매일 일기를 쓰거든요.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쓰기도 하고요. 제가 그림일기 책도 썼잖아요? 그림일기를 쓰기도 합니다. 저에게 가장 유용한 기록이 그림이에요. 손으로 쓰는 기록은 손으로 쓰는 기억인 거죠. 몸으로 기록하는 행위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런데 글보다 그림이 더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그림에 대한

기억력이 좋은 편이에요. 숫자 이런 거는 잘 안 들어오는데, 그림은 기억에 잘 박혀요. 그려 놓으면 언젠가 그걸 꼭 하게 돼요. 글씨는 읽어야 하지만, 그림이라는 것의 특징은 한 번 쓱 보고도 엄청난 정보를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낙서처럼 보이지만 엄청 압축된 정보이기도 하고, 내 뇌리에 새겨진 방식이기도 하고 그래요.



기록으로 담아놓았기에 내려놓고 넘어갈 수 있어

Q: 은혜 작가에게 기록은 어떤 의미일까요?

A: 저한테 기록은 예전에 제가 한 행위와 지금 시점에서 전달되는 내용 사이의 시간차를 메워 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한 기록 사이에는 언제나 딜레이(delay)가 있거든요. 기록이 하나 나올 때 그 행위는 그전에 이미 했던 거잖아요. 그런 딜레이가 있다는 말인데요. 지금 하는 행위 역시 몇 년 후에 세상에 알려지거나 떠돌게 될 거예요. 그때는 기록이 전달되는 거지 작업 자체가 전달되는 것은 아니니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것이 기록의 기능인 것 같아요.

또 심리적으로는 기록이 제게 무언가를 내려놓게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주로 무형의 아이디어나 정형화되지 않은 워크숍이다 보니 '그냥, 막'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책이든 자료집이든 뭐로든 기록해 놓으니까 마음이 괜찮아요. 일단 나의 노하우나 방법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어디 걸어둘 수도 있고, 꼬깃꼬깃해서 태울 수도 있고. 이렇게 '다룰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갖다 쓰고 카피를 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쥐게 되기도 하고요. 내려놓기 위해, 내려놓고 넘어가기 위해서 기록이 중요한 것 같아요.

Q: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을 아카이빙할 계획도 있나요?

A: 아직까지 작업 기록이나 아카이빙을 잘 못했어요. 경험하게 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 신경을 많이 못 썼지요. 올해는 아카이빙과 매핑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요. 바닷가에서 찾은 미세플라스틱 중에서 너들의 양을 매핑하고 기록하려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의 해안가에서 이것들을 줍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저처럼 예술작품으로 만들거나 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런 분들과 기록으로 네트워크를 하려면 어떤 툴과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 헤매고 있어요. 기록 전문가들 가운데 도움 주실 분이 있다면 좋을 거 같아요. 이 아카이빙과 매핑이 다른 나라나 지역의 연구자, 예술가들과 저를 연결해 주리라 기대해요.

치료실이라는 실내보다
자연에서 사람들이 훨씬 더
치유의 힘을 빨리 되찾거든요.
사람이 실내에 있으면
에너지가 안으로 쏠리고 깊어져요.
그런데 자연으로 나가면
우리의 감각도 밖으로 나가는데
이게 치료할 때도 참 좋거든요.

Jung Eun-hye

플라스틱 만다라 작품 활동 과정과 정은혜 작가

창작활동을 하는 정은혜 작가는 그 창작이 가진 치유의 힘을 빌어 고통받는 이들을 돕는 치료사이자 자연과 지구의 상처와 위기에도 책임감을 느끼는 지구인이다. 이렇게 보니 그 분리된 영역은 다시 한 방향을 가리킨다. 그가 하는 일이 돌보고 살피고 살리는 활동이라는 것. 정 작가는 그것이 '미안함'에서 나오는 일들이라고 말한다.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한 미안함, 그런 행위를 하는 존재라는 지독한 자각에서 오는 미안함. 너무 미안한 마음은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부끄러움에 동굴로 숨어버리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헤치고 나와 플라스틱 만다라로, 산호뜨개로, 책으로, 전시로 세상에 우뚝 서 있다. 덕분에 기후위기시대에, 기후위기를 초래한 많은 원인제공자들에게 할 일이 뭔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10

지구를 살리는
다정한 축제

2022
비건페스티벌

2022 ARCHIVING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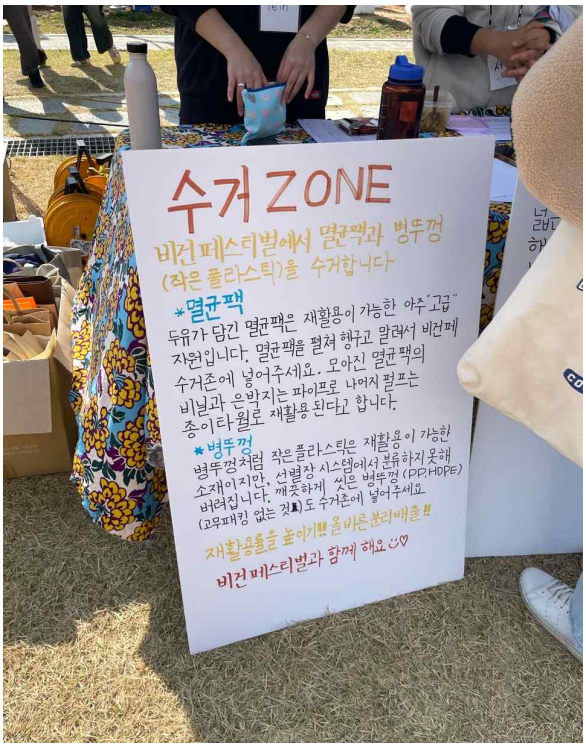
지구를 살리는 다정한 축제

3년 만에 다시 열린 2022 비건페스티벌 이모저모

육식을 피하고 식물을 재료로 한 음식을 먹는 채식주의자(vegetarian)의 다른 표현인 '비건'. 재료나 음식에 따라 우유나 달걀, 생선까지는 먹는 플렉시테리언부터 육식을 모두 거부하는 비건, 과일과 견과류만 허용하는 프로테리언까지 단계가 다양하지만 이들을 관통하는 공통의 정서는 지구생태계와 개인의 삶을 연결해 서로의 건강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

공장식 사육으로 대표되는 윤리적인 논쟁부터 지구 환경 위기를 초래하는 기형적인 생산 및 소비 시스템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국내 비건 인구는 꾸준히 늘어 2022년 말 현재 약 250만 명에 달하고, 가치관과 신념에 따른 '가치 소비' 성향이 강한 MZ세대에서 증가폭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비건들의 축제 '비건페스티벌'이 2022년 11월 1일 서울 은평구 서울혁신파크에서 개최됐다. 1944년 11월 영국에서 출발한 '비건 소사이어티(UK Vegan Society)'의 설립 50주년을 기념해 1994년부터 열리고 있는 '세계비건의 날'의 2022년 슬로건은 '비건 나우(Vegan Now-move now save now)'. 지금 여기서의 관심과 실천이 인간과 지구를 지키는 작지만 큰 걸음이라는 의미이다.

비건페스티벌 현장



비건페스티벌에서 멸균팩과 병뚜껑을 수거하는 이벤트

개인 식기를 미처 챙겨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컵 대여소

개인 그릇을 챙겨오는 문화가 정착된 비건페스티벌.
현장에는 설거지존이 따로 마련되어 있다.

3년 만에 열린 비건페스티벌, 반갑다~!

코로나19로 인해 열리지 못하다가 3년 만에 다시 열린 '2022 비건페스티벌'. 여전히 조심스러움이 묻어나는 축제에는 비거니즘의 현재를 보여주고, 지금 할 수 있는 실천을 독려하자는 뜻에서 먹을거리, 입을거리, 소품이나 생활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건 활동가들이 셀러로 참여했다.

비건 먹을거리를 맛볼 수 있는 곳으로는 네이버스, 베가니끄, 봄날, 숙자네김부각, 팀 바이두부, 에티컬테이블, 나유타, 만스에스테이트, 묘묘과자점, 문사기름집, 썸머링 부스가 있다. 플랜트콜라겐 등과 함께 유기농 비건 주류를 다루는 리틀베러와 어묵, 떡볶이, 핫도그 같은 학교 앞 음식을 만들어 낸 비건프렌즈 같은 비건 식당, 비건 그로서리 등도 참여했다. 비건 빵의 인기를 증명하듯 디오티디, 빵재미, 비건 이즈 힙, 로푸드팜, 소유니크 비건랩, 퓸즈, 홀썸, 오트홀릭 등의 '비건 빵집' 앞은 문전성시를 이뤘다.

축제에서는 '신박한' 비건 용품과 활동도 선보였다. 비건 비누 만들기 체험을 하고 비누 판매도 하는 트망트망, 여행하며 주워 모은 것들로 액세서리를 만드는 랩실, 생태주의를 바탕으로 독특한 굿즈를 제작하는 동아시아에코토피아, 자연의 향기로 치유를 돕는 힐드 아로마테라피, 손바느질과 자수로 작품을 만드는 자야의 작업실 등은 비건 라이프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부스였다.

책으로, 굿즈로, 체험으로 만난 비건

그밖에 《육식주의자들》이라는 책 홍보부스, 비건책방, 착한 책가게 같은 책 관련 부스, 비견이나 베니멀처럼 비건 방식으로 반려동물들을 챙길 수 있는 사료와 도구를 파는 부스, 사이잡화점, 플라가미, 얼반오리지널처럼 사랑스럽고 다양한 비건 굿즈를 판매할 수 있는 부스도 눈길을 끌었다.

비건페스티벌에 참가한 부스들

축제에 모인 사람들과 쓰레기를 줍자는 모임

'이상행동' 비건은 어떻게 쓰레기와 만나는가

얼핏 쓰레기와 비건 사이는 멀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쓰레기와 비건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찰싹 붙어 있다. 채식은 인간이 지구를 조금이라도 덜 해치기 위해 하는 가장 이상행동이다. 왜 이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이상행동이라고 할까.

인간이 고기와 채소 모두를 먹는 잡식성 동물인 것은 (비건을 지향하는 몇몇 연구자들에게는 이견이 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문제는 고기를 먹기 위해 하는 행위가 지구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대안 가운데 하나로 채식을 선택해 왔다. 육식을 하는 것만으로 지구에 해를 끼치는 것은 아니지만 더 많은 고기를 더 저렴하고 신속하게 먹기 위해 '농장'과 '양식'을 급속히 발전시켜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오염이 뒤따랐다. 사육의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항생제 오남용과 비윤리적인 사육 조건, 도살 처리, 가공하고 운송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 뿐만 아니라 농축산업 분야가 기업화되면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가축 전염병-집단 폐사-매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매몰은 다시 토양과 토질, 수질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비건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돕는 체험 부스는 예비 비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했다. 꽃풀소 전시 및 추억의 랜덤뽑기 이벤트를 마련한 동물해방물결, 비건 상식퀴즈를 풀고 비건식 명상과 플로깅 경험을 할 수 있는 청귤감귤살롱, 2022 동물권행진 기념 타투스티커를 '즐길' 수 있는 비건클럽, 비건 다방커피를 맛볼 수 있는 츄라이비건 등이다.

**때론 고되고, 때론 행복한,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실천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모두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빠르게 호전되어
지구와 인류, 모든 존재에게
더 많은 시간이 허락되기를 빕니다.**

다정한 비건
그리고 비건의 변주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마다 다양한 해법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소비의 가장 말단에 있는 일반 시민은 그 과정에 관여할 정보나 방법에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비건이라는 식생활 전환이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실천인 이유이다. 비건이라는 말 속에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환경에까지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확장하는 인간 본연의 배려와 평화의 태도가 담겨져 있다. 비건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근저에는 이러한 뜨거운 문제의식이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비건라이프가 모든 층위에서 정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엄중한 문제의식은 때로 보다 많은 사람들과 유연하게 만날 수 있는 전략과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 이는 비건페스티벌의 존재감을 더욱 '뿜뿜'하게 한다. 비건페스티벌은 지구와 환경에 대한 가장 강렬한 문제의식을 가장 '다정한' 언어로 만날 수 있는 장인 것이다. 한 참가자는 이런 후기를 남겼다.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하고 포장용기를 들고 가는 게 이상하지 않은 페스티벌, 오히려 할인까지 받을 수 있어 진짜 좋았어요. 설거지하는 구간도 있고 컵이나 그릇을 대여할 수도 있도록 신경쓴 부분도 인상적이었어요."

비건은
어떻게 사람과 만나는가

코로나19라는 느닷없는 지구적 재난으로 3년이라는 공백기를 가져야 했던 비건페스티벌이 어렵게 재개되기 하루 전, 도심 한가운데서 158명의 목숨이 사라지는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 날이 밝고, 예정된 행사를 멈출 수 없었던 탓에 축제가 열렸으나 결코 축제 같은 축제일 수는 없었던 그 시간이 지난 뒤, 주최 측은 온라인 상에 다음과 같은 공지문을 올렸다.

"이태원참사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절절히 공감하며, 깊은 위로와 애도를 보냅니다. 생명은 모두에게 하나뿐인 소중한 것이고,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자신의 생명만큼 살아 있는 모든 생명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고되고, 때론 행복한,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실천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는 모두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또한 기후위기가 빠르게 호전되어 지구와 인류, 모든 존재에게 더 많은 시간이 허락되기를 빕니다."

비건페스티벌이 건네는 말처럼 사람과 지구 이 땅을 사는 모든 존재에게 더 많은 시간이 허락되기를! 여기에 쓰레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닮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살포시 덧대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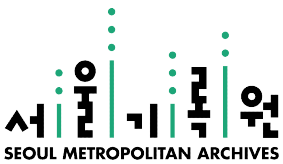
'비건 나우' 2022 행동수칙

① 100세 이상만 흡연 가능
② 무알콜 맥주만 드실 수 있어요.
③ 사진 찍을 때 모르는 사람 '블러' 처리
④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개
⑤ 반려동물은 환영(배변처리는 필수!)
⑥ 비건존 안에서 육식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⑦ 비건존 안에서 곤충은 죽이지 말아주세요.
⑧ 쓰레기 분리수거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2022 서울기록원 아카이빙북
미래를 기록하는 환경혁신가들과 대화

환경과 쓰레기
그리고
기록의 온도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고경희 서울기록원장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행일 2022. 12.
제작부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제작총괄 김은실 기록정책과장
제작담당 정찬홍 학예연구사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전화 02-350-5600
기획·제작 투에이 주식회사·P&WG손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